心實愛世
攝信慈度

本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 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년회비:2만원)

東友會報

The DongGuk Alumni News

1999年(檀紀4332년) 11月 22日 第182號【1】

발 행 인 權 魯 甲
편 집 인 池 燦 京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 2호
전화 : 733-3991~3
FAX : 733-3992

은행지로번호 7500891

하나뿐인 지구 동국인도 하나입니다







〈사진설명〉

㉮ 10월 1일 모교 상록원에서 개최된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에서 권노갑 회장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동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북미주동문들을 격려했다.

㉯ 10월 2일 경주 코오롱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체육대회 전야제 전경.
북미주동문을 포함해 전국 지부·지회에서 6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 화합과 단결의 기치아래 10월 3일 모교 경주Campus 체육관에서 열린 '99 동국인 체육대회.
배구, 줄다리기, 줄넘기, 윷놀이 등을 통해 하나된 동국인임을 확인했다.

♣ 촬영 : 송광수(87 행원)동문

지 면 안 내

2면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99 동국인 체육대회
3면
■협찬자 명단
4~7면
■사진으로 보는 북미주동문 초청 및 동국인 체육대회
8~9면
■동문 동정
10~11면
■회비 납부자 명단
12면
■특별기고 / 수필
13면
■동문기업 소개(삼창기업<주>)
14면
■모교소식(불교 종합병원 착공식)
15~17면
■지부·지회 소식
18면
■송년의 밤·2000년 행사 안내
19면
■해외지부 소식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99 동국인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북미주동문 135명 참석, 지구촌 화합의 한마당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99 동국인 체육대회(제16회)》가 지난 10월 1일(金) 오후 7시 모교 상록원에서 지찬경(76 경행) 사무처장의 사회로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고문)회장, 오록원 재단이사장과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총장, 황명수(53 정외·국민회의 부총재)명예회장, 류근창(50 문학·고려숭의회 이사장)고문, 류주형(57 농학·충남빙적그룹 부회장)수석부회장, 배시영(63 경제·본회 부회장)북미주총동창회 회장, 이태근(58 정외·본회 부회장)북미주총동창회 명예회장, 이민휘(56 정외)북미주총동창회 고문, 장정헌(67 상학·본회 부회장) 북미주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등 135명의 북미주 동문들과 300여명의 국내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10월 2일에는 경주로 이동하여 오후 7시부터 경주 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99동국인 체육대회 전야제」를 가졌으며, 3일에는 모교 경주캠퍼스 문무관(체육관)에서 「동국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범 세계적인 동국인 축제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10월 1일 열린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에서 권노갑 회장은 『여러분들은 일찍이 이 동악을 오르내리며 젊음의 꿈과 학문의 길, 그리고 지성과 야성을 닦았다. 그리고 원대한 희망 속에서 동국인 특유의 용감성, 진취성을 살려 해외로 활동영역과 생활권을 확대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속의 동국인으로서 성공을 거두고 동국인의 명예와 긍지를 어느 대학동창들보다 드높이고 있다』고 말한 후 『지금 모교 동국은 오록원 이사장과 송석구 총장 체제하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송석구 동문이 총장이 된 이래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시, 이제 동국을 거듭 새로이 태어나게 하고 있으며, 사회적 평판도 크게 신장되어 가고 있다. 이에 16만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록원 이사장은 『수만리 이국땅에서 오직 동국의 한 가족이라는 인연과 학연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조국을 찾아주고 모교를 빙문해 준 북미주 동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한후 『동국인 하나하나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에서 이끌어 주는 선배,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후배로서의 애정과 의리를 지키며 동국발전에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로 뭉칠 수 만 있다면 우리 동국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기필코 세계의 동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송석구 총장은 『오늘 이 자리가 동국인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동시에 동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후배들의 애교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동문 여러분들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기 혁신으로 동문 여러분들이 바로 동국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것은 우리 16만 동문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할 때 완수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동문 여러분들의 보다 더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북미주 동문을 대표하여 배시영 북미주총동창회 회장은 답례사를 통해 『북미주 동문을 초청하여 이렇게 화려한 환영연을 베풀어 준 권노갑 회장을 비롯한 16만 동문과 오록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한 후 『이번 방문을 통하여 우리 북미주 동문들은 모교와 총동창회에 보다 큰 애교심과 애정을 느끼고 있으며, 모교의 발전된 상황을 보며 우리들도 동국발전의 대열에 동참하여 21세기 세계속의 대학과 총동창회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모교와 본국 총동창회와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북미주총동창회는 내년 5월이나 6월중 뉴욕으로 회장님과 총동창회·임원 및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초청하여 미국에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동국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 또한 매년 10여명의 동문 및 재학생을 북미주로 초청하겠다. 북미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국인을 만나 따뜻한 동문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어 배시영 북미주총동창회장은 북미주 동문을 초청하여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고 동국의 발전상을 보여준 권노갑 회장과 오록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에게 북미주 동문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증정했다.

2부 연회는 이덕화 동문의 사회로 이일웅, 반효정, 박주아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국환, 설운도 동문이 가요 메들리로 동문들의 흥을 돋구어 주었으며, 또한 오묵배 동문은 통소 공연을, 남보원 동문은 한국 최고의 원맨 쇼로 동문들의 흥을 한껏 북돋아 주었다. 밤 11시가 되어 끝난 행사를 아쉬워하며 앰베서더호텔에서 1박을 한 북미주 동문들은 2일 오전 10시 앰베서더를 출발하여 경주로 향했다.

모교 경주캠퍼스에 도착한 동문들은 최규철(66 정외·본회 상무이사)부총장과 조재호(65 불교·본회 이사)동국의료원장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모교와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을 둘러 보고, 발전된 동국, 새천년을 이끌 동국의 모습을 보았다. 또한 신라고도 천년의 진수인 석굴암, 불국사와 경내 다보탑, 석가탑을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북미주 동문들은 서둘러 경주 코오롱호텔로 돌아와 여정을 풀었다.

이날 저녁 7시 경주 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6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9 동국인 체육대회 전야제」에서 권노갑 회장은 『동국인의 화합과 단결의 자리에 참석하여 준 북미주 동문들과 전국 지부·지회 동문들에게 감사한다』며 『참된 동국인임을 느끼며 동국애를 나누는 이 자리를, 우리는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자리로 승화시켜 새천년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북미주총동창회 창립을 위해 회칙 초안을 작성하는 등 북미주총동창회와 시카고동문회의 창립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곽병희(65 정외)전 사무총장과, 벤쿠버동문회와 교포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박두일(66 정외·부회장)벤쿠버동문회 고문, 북미주 유일한 여성 동문 회장으로 현재 Lockheed Martin사의 구매담당 책임자로 재직하며, 샌프란시스코지역에서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지극 정성으로 봉사하여, 동국인의 위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의 모범을 보인 하혜원(67 영문·부회장)샌프란시스코 동문회 회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동문회는 이날 $1,000를 본회에 장학금으로 기증하여 모범 지부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3면에 계속〉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99 동국인 체육대회 일정

가. 행사기간 : 10월 1일(金) - 10월 4일(月) / 3박 4일

나. 세부일정

① 10월 1일(金)
- CHECK-IN (AMBASSADOR HOTEL / 12 : 00 - 18 : 00)
- 모교 소개(중강당 / 18 : 00 - 19 : 00)
- 환영연(모교 서울캠퍼스 상록원 RESTAURANT / 19 : 00 - 21 : 00)
- AMBASSADOR HOTEL(1박)

② 10월 2일(土)
- 경주이동 (10 : 00 서울 출발 / 15 : 00 경주 도착)
- 경주캠퍼스 및 동국대학교 부속병원 시찰 (15 : 00 - 16 : 00)
- 관광(불국사·석굴암 / 16 : 00 - 18 : 00)
- CHECK-IN(경주 KOLON HOTEL / 18 : 00 - 19 : 00)
- 동국인 체육대회 전야제 (경주 KOLON HOTEL 연회장 / 19 : 00 - 21 : 00)
- 경주 KOLON HOTEL(1박)

③ 10월 3일(日)
- 골프 TEE-OFF(경주 보문 C.C / 07 : 00 - 14 : 00)
- '99 동국인 체육대회 (경주캠퍼스 체육관 / 10 : 00 - 17 : 00)
- 동국인 체육대회 합류 (경주캠퍼스 체육관 / 15 : 00 - 17 : 00)
- 경주 KOLON HOTEL(1박)

④ 10월 4일(月)
- CHECK-OUT(10 : 00 -) ⇒ 서울 도착(15 : 00 전후)

동문 여러분의 협찬으로 행사를 훌륭히 치룰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위: 만원〉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및 '99 동국인 체육대회 협찬자 명단

회 장
▲권노갑(53경제)=500

고 문
▲송석구(62철학)=1000
▲문태식(49사학)=500
▲정재철(52정외)=500
▲김성섭(53정외)=500
▲류근창(50문학)=200

부회장
▲류주형(57농학)=300
▲이두철(91지원)=1500
▲박준형(63경제)=500
▲이화일(65상학)=500
▲전순표(57농학)=300
▲김재기(60경제)=300
▲이연택(61법학)=300
▲이재곤(68경제)=300
▲홍평우(70경영)=300
▲구자선(81경원)=300
▲이석용(58정외)=200
▲김재국(63법학)=200
▲정규완(65경제)=200
▲이상윤(98일원)=200
▲김동정(57법학)=100
▲임덕규(60법학)=100
▲정인악(60화학)=100
▲이학래(62법학)=100
▲안병호(82행원)=100
▲김일윤(92경원)=100
▲김상훈(59국문)=30
▲신순범(61정외)=30
▲김영환(62경제)=30
▲원용선(63영문)=30
▲윤부성(63생물)=30
▲조희영(63경영)=30
▲장장순(65법학)=30
▲윤천영(66농학)=30
▲조은구(68경제)=30
▲김대원(70경행)=30
▲이무영(71행정)=30
▲김법조(73불교)=30
▲김진선(74행정)=30
▲고한준(88행원)=30
▲안보순(90행원)=30
▲김기재(93행원)=30
▲탁연복(64법학)=10

감 사
▲강의현(60경제)=20
▲이재형(68불교)=20

지도위원
▲유현목(49문학)=20
▲정해수(49사학)=20
▲김제국(61경제)=20
▲방지하(71불교)=20
▲이혜총(72불교)=20
▲조 규(77경원)=20
▲박현성(73행원)=10

운영위원
▲설규성(67법학)=100
▲조성운(56경제)=20
▲이윤종(59법학)=20
▲최성규(60법학)=20
▲공진식(61경제)=20
▲국기일(63경제)=20
▲백문기(63법학)=20
▲주선응(63불교)=20
▲최용관(64상학)=20
▲양정오(81행원)=20
▲박병욱(91행원)=20
▲하만장(92경원)=20
▲김문영(93경원)=20
▲김영희(63법학)=5

분과위원장
▲김진문(71경영)=200
▲유대열(72상학)=20
▲장동락(77정외)=10

상무이사
▲최 균(65경제)=20
▲김동성(81정외)=20
▲이윤훈(81정외)=20
▲안종진(59영문)=10
▲윤대흠(61정외)=10
▲홍사현(63사학)=10
▲박종구(65경영)=10
▲민병철(66상학)=10
▲황민환(67행정)=10
▲김성수(68경행)=10
▲김진찬(68경영)=10
▲민경화(68법학)=10
▲최규수(71경행)=10
▲김성태(79경원)=10
▲김윤근(82경원)=10
▲황승민(63상학)=5
▲유광진(64정외)=5
▲이범진(69정외)=5
▲정학주(72법학)=5
▲남형수(75경행)=5
▲이강식(93불원)=5
▲이윤심(79행원)=5
▲이병곤(일원)=5
▲신승길(63경제)=3

이 사
▲남재우(78정외)=100
▲안규호(97지원)=20
▲방원석(58정외)=10
▲고병현(59경제)=10
▲이존립(62경제)=10
▲전진표(64입학)=10
▲심현섭(65경제)=10
▲이경범(69경행)=10
▲강진원(72경영)=10
▲이인정(72상학)=10
▲한상익(74경행)=10
▲이희경(75경행)=10
▲강영규(77경행)=10
▲김상구(77경행)=10
▲한대현(91경원)=10
▲임영신(57경제)=5
▲박종윤(59경제)=5
▲류수택(67경영)=5
▲이재철(67경제)=5
▲이환익(70법학)=5
▲이상진(71정외)=5
▲지형운(84식공)=5
▲강석진(63경제)=3
▲최광화(79경행)=3
▲최원두(81경원)=3
▲정낙진(83행원)=3
▲현학진(90경제)=3
▲이춘자(97경원)=2

일반회원
▲동국마당회=200
▲한의과동문회(손창수)=30
▲염상윤(64정외)=10
▲김용구(74농경)=10
▲민현석(71국문)=10
▲권창호(60경제)=5
▲하근수(71법학)=5
▲이영수(86한의)=5
▲산림청동문회 =5
▲신만철(96경원)=3
▲이상연(행원)=3
▲김종덕(64경제)=2
▲정재달(64경영)=2
▲임치유(85한의)=2
▲이승택(83회계)=2
▲박진욱(87물리)=2
▲장봉기(88교원)=1

행운상품 협찬자
▲권노갑 총동창회장
▲황명수 총동창회 명예회장
▲오록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류주형 수석부회장
▲배시영(63경제)
북미주총동창회 회장
▲이태근(58정외)
북미주총동창회 명예회장
▲이민휘(56정외)
북미주총동창회 고문
▲최규철(66정외)
경주캠퍼스부총장
▲김만식(63경영)
몽고식품 회장=선물 20개
▲탁연복(64법학)
인천지부 회장=선물 5개
▲김영환(67정외)
남양알로에 전무=화장품 세트
▲이운영(70농학)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침구세트
▲최규수(71경행)
경주교도소 소장=황금주 6개
▲김진선(74행정)
강원도지사=시계 10개
▲손창수(87한의)
한의과동문회장=경옥고 2개
▲이두철(91지원)
삼창기업 회장=선물 10개

〈2면에서 이어짐〉

이어 황범식 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연회에서는 동국국악예술단 단장인 박상진 교수의 신들린듯한 지휘로 민요 메들리와 관현악 협연,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음악으로 동문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한편 금년으로 16회째를 맞이한 '99 동국인 체육대회에는 서울본부, 경주직할동창회, 북미주총동창회, 부산동문회, 대구동문회, 광주동문회, 대전·충남동문회, 포항동문회, 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 경주캠퍼스재직동문회 등 10개 지부가 참가해 배구, 줄다리기, 윷놀이 등을 통해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류주형 수석부회장은 권노갑 회장을 대독한 축사에서 『금년은 특히 북미주동문과 대전·충남동문회가 참석하여 전국 8도 모든 지부와 해외지부가 참가한 대회니 만큼,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세계로 뻗는 동국, 세계를 무대로 뛰는 동국인의 모습으로 총화 단결하자』고 말했다.

500여명의 참석 동문과 가족들은 중간 중간 동국국악단 후배들의 흥겨운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었으며, 폐막후에는 모든 동문이 뒷풀이에 참가하여 신순범(61정외·전 국회의원·본회 부회장)동문과 박광도(65 불교·〈주〉삼해 회장)동문의 능숙한 선도로 체육관 곳곳을 누비며 사물놀이 한마당을 벌였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번외경기인 북미주총동창회와 종합우승팀인 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간의 줄다리기에서는 결속력을 과시한 북미주총동창회의 승리로 끝났으나, 이는 이역만리에서 온 북미주동문이 혹시나 패할까봐 단상의 임원 선배들까지 가세하여 북미주 동문을 응원한 결과였다.

그러나 종합우승팀인 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는 인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북미주 동문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이를 모른 체하는 등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종합우승팀다운 면모를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여기 저기서 벌어진 단체줄넘기 대회에서 북미주 동문 부인들의 즐거워 하는 모습은 초등학교 소녀시절로 돌아간듯한 모습이었으며, 3-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같이 즐기는 동심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이역시 동국의 정신과 어울려 벌어진 화합과 만남의 장이라 모두들 박수로 상호 격려했다.

한편, 배구, 줄다리기, 줄넘기, 윷놀이 등을 통해 하나된 동국을 확인한 「동국인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은 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회장=이두철·91 지원·삼창기업(주) 회장·본회 부회장)가 차지했으며, 2위는 경주재직동문회(회장=최규철·66 정외·모교 경주캠퍼스 부총장·본회 상무이사), 3위는 대구지부동문회(회장=김상준·70 정외·대학당 대표·본회 부회장)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 각 종목의 우승 및 입상팀은 다음과 같다.

■ 배구
1위=경주재직동문회
2위=대구동문회
3위=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

■ 줄넘기
1위=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
2위=경주직할동창회
3위=대구동문회

■ 줄다리기
1위=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
2위=경주재직동문회
3위=대구동문회

■ 윷놀이
1위=공창희(대구동문회)
2위=홍길영(부산동문회)
3위=최재창(포항동문회)

동국 동국 동국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명국환 동문


남보원 동문




이일웅 동문


이덕화 동문


반효정 동문


박주아 동문

동국! 세계를 품다

(황명수 명예회장의 축배제안)


설운도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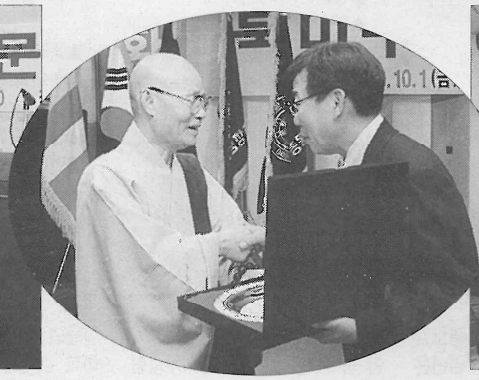

오은주 동문


북미주 동문을 맞이하는 권노갑 회장



본회와 모교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자고 역설하는 권노갑 회장







배시영 북미주총동창회 회장이 권노갑 총동창회장, 오록원 재단이사장, 송석구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좌측부터)


화합하는 동국인, 나가자 세계로!



2부 사회를 맡은 이덕화 동문이 2부 연회를 지휘한 염현섭(본회 예술분과위원장・가운데)KBS 부주간 동문과 정성렬(본회 홍보분과위원장・우측)동문을 소개하고 있다

동국인 동국인 동국인

'99 동국인체육대회 전야제





한마음, 한뜻. 우리는 동국인

총동창회와 모교발전을 이루고야 말리라



하혜원 샌프란시스코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권노갑 회장



박두일 벤쿠버동문회 고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신라고도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에 동국인이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짐했다



동국국악예술단 (단장=박상진 교수)이 행사의 흥을 한껏 북돋았다



북미주 여자동문들이 나와 노래솜씨를 뽐냈다

동국사랑 동국사랑 동국사랑

'99 동국인체육대회



류주형 수석부회장이 대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류주형 수석부회장이 이두철(우측)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장에게 '99 동국인체육대회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최규철(좌측) 경주Campus 부총장이 이태근 북미주총동창회 명예회장에게 기념촬영한 사진을 전달하고 있다. 최규철 부총장은 전 북미주 동문들에게 기념사진 135 Set를 전달했다



등굴게 등굴게, 등굴게 등굴게, 등굴등굴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아자!

동국발전 동국발전 동국발전

북미주동문 모교 Home-Coming Day 및 초청 Golf 개최



모교를 방문하니 웃음이 저절로 나는구나. 으하하하 !

조재호 동국의료원장이 북미주 동문들에게 동국의료원의 현황 및 시설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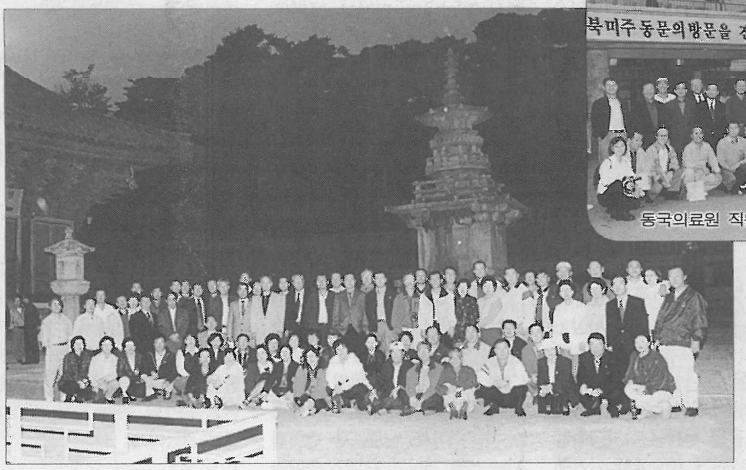




학교 다닐때도 이만큼 진지하게 듣지는 않았는데…



동국의료원 직원들의 환대에 가슴이 뭉클





세계의 보물 불국사(좌측)와 석굴암(우측)을 관람한 북미주 동문들. 음… 가서 자랑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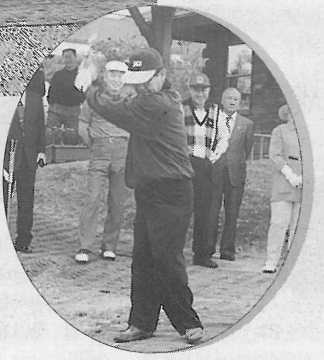
지구를 반바퀴 돌아
대한민국까지 날아왔다.
좋은 결실을 맺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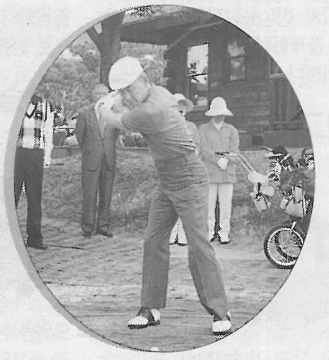
권노갑 회장



송석구 총장



배시영 북미주총동창회 회장



이민휘 북미주총동창회 고문

同門동정

本人의 근황이나 주위 동문들의 諸소식등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바랍니다.

학술회의 개최

황 명 수 동문



▲황명수(53 정외·운강 이강년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본회 명예회장)동문은 지난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운강 이강년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운강 이강년 선생은 장장 13년간 침략자 일제와 30여 자례의 대선에서 왜석 수천명을 괴멸시키고, 우리나라 의병사상 불멸의 금자탑을 쌓았으며, 전무후무한 전승을 기록했다.

정토결사 전진대회 봉행

선 진 규 동문



▲선진규(59 불교·봉화산 수련원 원장·〈사〉대한불교조계종 전국불교신도회 중앙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봉화산 정토원에서 「제1차 10만불자 정토결사 전진대회 및 호미든 관음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호주·뉴질랜드 방문

이 윤 종 동문



▲이윤종(59 법학·임업협동조합 중앙회장·본회 운영위원)동문은 지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뉴질랜드 국빈 방문시 경제사절단의 일행으로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동문은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17차 한·뉴질랜드 및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모교 겸임교수 출강

김 재 기 동문



▲김재기(60 경제·전 주택은행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최근 모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 임명돼 11월부터 자신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급경영전략」을 강의하고 있다.

세미나 개최

임 덕 규 동문



▲임덕규(60 법학·월간 디플로머시지 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0월 18일 오전 7시 서울 타워호텔에서 독일 뮌헨대 킨더만 교수를 초청, 「독일 통일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부동산 시장 변화 대토론회

오 진 모 동문



▲오진모(61 법학·〈사〉대한부동산학회 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1월 6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00년대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와 대응전략」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학술회의 참석

송 석 구 동문



▲송석구(62 철학·모교 총장·본회 고문)동문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북경대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모교와 북경대 공동주최로 「전통문화와 현대화」라는 주제하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문화와 현대화의 관계 △21세기를 맞이하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과 민족정신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한중 전통문화의 현실적 의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학술세미나 개최

김 진 철 동문



▲김진철(62 정외·모교 사회과학연구원 장·본회 지도위원)동문은 지난 11월 5일 모교 상록원 회의실에서 「세계체제의 정치경제학」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창문학상 수상

김 양 일 동문



▲김양일(63 정외·울산일보 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9월 5일 수필 「동서화합」으로 제4회 「고창문학상」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오는 12월 4일 오전 11시 고창 늘봄공원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한·중 국제학술회의 참석

송 재 운 동문



▲송재운(64 철학·모교 재단사무처장·한국공자학회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10월 22일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국제학술회의에서 「유가 전통과 현대 한국가족문화」란 주제로 발표했다.

모교 객원교수 위촉

박 도 근 동문



▲박도근(65 상학·〈주〉건신투자개발 사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9월 20일 모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로 위촉됐다. 박동문은 선경증권 사장퇴임 후 지난 2년간 모교에서 기업구조조정 등을 강의해왔다.

후원의 밤 개최

이 긍 규 동문



▲이긍규(65 법학·국회의원·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0월 18일 오후 6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긍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출판기념회 주최

신 윤 표 동문



▲신윤표(65 행정·한남대학교 대학원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0월 16일 오후 3시 한남대 국제회의실에서 「제2의 건국운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교직원에 강연

최 규 철 동문



▲최규철(66 정외·모교 경주캠퍼스 부총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10월 20일 정각원 법당에서 열린 교직원 법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우리의 자세」란 주제로 강연했다.

모교 겸임교수 출강

김 창 환 동문



▲김창환(67 경영·본회 이사)동문은 타워호텔 총지배인, 경주 조선호텔 총지배인, 한국지배인협회 회장, 해운대 그랜드호텔 총지배인 등을 거치며 쌓아온 30여년의 경력과 연륜을, 인재 양성과 학문 발전에 구현하여 새시대에 도약하는 관광발전에 일조하고자 지난 9월부터 모교 겸임교수로 출강했다.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

오 록 원 큰스님



▲오록원(동국학원 이사장)큰스님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동국학원 제164회 이사회에서 학원 이사장으로 재 추대돼 지난 10월 26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취임했다.

관음종 종정 추대법회 봉행

이 홍 파 큰스님



▲이홍파(67 불교·〈재〉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본회 부회장)큰스님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1시 장충체육관 대법단에서 운공 혜웅 대종사의 대한불교 관음종 제5세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국제 기능올림픽 참가

최 상 용 동문



▲최상용(68 행원·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본회 운영위원)동문은 지난 11월 2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35회 국제 기능올림픽」에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했다.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박 진 호 동문



▲박진호(69 경영·동부산대학 경영정보학부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8월 동의대학교에서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금강·고려 종합전시관 개원

박 태 욱 동문



▲박태욱(71 경제·〈주〉금강엔지니어링 대표·포항동분회 회상·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0월 16일 포항소재 호텔로얄시그너스 옆에 금강·고려 종합 전시관을 개원했다.

환력기념 논총 봉정식

박 현 성 큰스님



▲박현성(73 행원·중앙승가대학교 총장·동국학원 이사·본회 지도위원)큰스님은 지난 11월 15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환력기념 논총 봉정식」을 거행했다. 이 행사는 현성 큰스님 논총 간행위원회에서 주관했다.

세미나 개최

한 보 광 큰스님



▲한보광(75 불교·대각사상연구원장·모교 대외협력처장·본회 상무이사)큰스님은 지난 10월 6일 오후 2시 모교 90주년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21세기의 불전 전산화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김 상 숙 동문



▲김상숙(76 일원·동대사대부속중학교 교장·본회 이사)동문은 최근 한국종교서예협회가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통일 서예대전에서 최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오는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모교에 컴퓨터 기증
김 승 찬 동문

▲김승찬(76 전산·모교 창업보육센터지원 기업인협의회 회장)동문은 지난 9월초 모교 멀티미디어 문화·예술분야 창업보육센터의 기자재용 컴퓨터 50대(약 1억5천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김동문은 현재 중견 벤처기업인 (주)경기시스템 대표로서 양재·포이 벤처기업인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아태환경 NGO 한국본부 부총재
최 영 태 동문



▲최영태(77 행원·모교 경주캠퍼스 교수·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최근 UNEP (사)아태환경NGO 한국본부 부총재로 취임했다.

모교 축구부 격려
김 운 선 동문



▲김운선(80 경행·제천서장)동문은 지난 10월 23일 제천 세명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종합선수권대회」에서 모교 축구부에 금일봉과 사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장학금 기탁
최 형 기 동문

▲최형기(80 전자·현우맥플러스 대표이사)동문은 지난 9월 27일 전자공학과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5백만원을 기탁했다. COLOUR TV를 전문 생산 수출하는 현우맥플러스 대표이사인 최동문은 실험실습 기자재 기증 및 산학협동 연구 등 후배들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시인학교 시낭송회 회장
최 봉 동문



▲최 봉(82 식공·본회 이사)동문은 최근 종로구 낙원동 파고다 극장앞에 블랙홀 시인학교 시낭송회 호프광장을 개업했다. 최동문은 그동안 신용관리기금 감사실차장, 검사2국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제한약제 개업
김 진 기 동문



▲김진기(82 전산·본회 이사)동문은 최근 동대문구 제기동에 한약재를 도소매 하는 동제 한약제를 개업했다.

대중해수사우나 개업
손 상 출 동문



▲손상출(84 행원·〈주〉효창건설 대표이사·본회 운영위원)동문은 지난 10월 11일 오후 3시 현대오피스텔 1층에서 건물 준공식 및 대중 해수사우나 개업식을 가졌다.

후원의 밤 개최
황 규 선 동문



▲황규선(85 일원·국회의원·본회 지도위원)동문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4시부터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황규선 후원의 밤」을 가졌다.

합참의장 취임
조 영 길 동문

▲조영길(90 행원)동문은 지난 10월 26일 합참의장에 임명됐다. 조동문은 소신이 뚜렷하고 부하를 잘 챙기는 자상한 인품의 덕장으로 영관장교 시절부터 군의 전략기획과 군사력 건설분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시사팡마봉 등정
박 영 석 동문



▲박영석(90 체교)동문은 지난 9월 26일 오후 3시(현지시각) 해발 8,012m인 히말라야의 시사팡마봉 중앙봉 등정에 성공했다. 박동문은 현재 세계 8,000m급 봉우리 14좌 완등에 도전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돕기 사업
김 일 윤 동문



▲김일윤(92 경원·국회의원·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열린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이사회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을 협의했다.

국제 환태평양회의 참석
유 인 학 동문



▲유인학(92 일원·한국조폐공사 사장·세계 거석문화협회 총재·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 「제14차 환태평양은행권 인쇄책임자 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재무부 인쇄국과 조폐국을 방문했다.

위문품 전달
김 기 재 동문



▲김기재(93 행원·행자부장관·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9월 21일 오후 중증 뇌성장애인 보호시설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영락애니아의 집과 고아시설인 영락 보린원을 방문, 장애인과 원생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개업
이 선 우 동문



▲이선우(95 산공·변리사)동문은 지난 9월 27일 강남 역삼동에 특허법률사무소인 「서울테크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TEL : 566 - 2822)

세계 시인대회 참석
백 한 이 동문



▲백한이(95 예원·〈주〉한미디어 대표)동문은 지난 10월 25일부터 멕시코 아카풀토에서 열린 「제19회 세계시인대회」에 참석하고, 제3회 행촌문화상 시상 및 「현대시와 자유주제」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동문인사이동

<국세청>
▲민병휘(67 상학)=대전청 납세지원국장
▲기영서(98 국제)=중부청 조사3국장

<환경부>
▲한두환(68 통계)=경인환경관리청 관리과장

<통계청>
▲변효섭(79 통계)=산업통계과 서기관

<경찰청>
▲양성철(77 경행)=용인서장
▲김성배(86 행원)=경북 경산서장

<국회사무처>
▲고영희(64 농경)=총무과 후생담당서기관

<정보통신부>
▲김명용(81 행정)=우정개발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종헌(81 영문)=연수교육부장

<한국가스공사>
▲강승원(73 경행)=감사실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성상(경원 22)=경리부장
▲김성수(경원 24)=사고조사처장

<축협중앙회>
▲김순무(68 상학)=충남도지회장 ▲김달수(72 상학)=전남도지회장

<현대증권>
▲윤성현(경영)=마포지점장

<신동아화재>
▲엄광석(74 영문)=지역보험 2부본부장

<기업은행>
▲이금호(73 법학)=수원지점장

<서울은행>
▲홍한표(68 경제)=서무부장
▲조인희(70 행정)=신촌지점장
▲최한상(71 상학)=강서영업본부장 ▲김 목(72 상학)=남산지점장 ▲김문식(72 경원)=중부지점장 ▲권기혁(경원 49)=소사지점장

<제일은행>
▲김성배(84 전산)=도봉동지점장

<주택은행>
▲김원기(76 농경)=대구지역본부장 ▲조병복(79 경제)=무교동지점장 ▲최응호(80 경제)=수유동지점장

<한미은행>
▲전창열(82 회계)=전주영업지점장

<한빛은행>
▲성동언(71 행정)=대전지점장
▲김동영(73 무역)=고덕서지점장 ▲최병도(76 농경)=인천지점장 ▲임현규(77 경제)=신성쇼핑지점장 ▲이성휘(78 경원)=대치역지점장 ▲박득곤(80 경행)=당산지점장 ▲배상열(88 무역)=부평지점장 ▲박인석(88 행원)=광주지점장 ▲이인배(경원 40)=개포지점장

경찰청장 취임
이 무 영 동문



▲이무영(71 행정·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11월 15일 제9대 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이동문은 경찰 각 분야를 두루 거쳐 업무장악력이 탁월하며, 호방하고 소탈한 성격에 대인관계도 원만하며 보스기질이 강하다는 평이다.

♦주요 프로필♦
△강남서장 △서울청 강력과장·형사부장 △경찰청 방범국장·보안국장 △전북청장 △전남청장 △경찰대학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의 날 훈·포장자 명단

녹조근정훈장
▲박선규(71 행정)=경기청 경무과장
▲한상익(71 경행)=대전 동부서장
▲김상구(73 경행)=진천서장
▲한휴택(94 행원)=관악서장

근정포장
▲정선모(66 임학)=경찰청 방범기획과장
▲강영규(74 경행)=경찰청 예산담당관
▲박종국(77 경행)=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석기(89 행원)=서울청 방범지도과장
▲신두호(행원)=종로서 경비과장

창립총회 개최
4.19혁명동지회

4.19혁명동지회(회장=김대건·63 법학)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7시 모교 상록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정성어린 회비 감사합니다

동문여러분들이 내주신 회비는 총동창회 발전과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고문 · 부회장 · 감사 · 지도위원 · 운영위원 · 분과위원장 회비 : 99. 3. 1. ~ 99. 11. 13.
상무이사 · 이사 · 일반회원 회비 : 99. 7. 10. ~ 99. 11. 13.

◎ 알 림 ◎

1. 회비 명단은 가나다순.
2. 회비납부시, 성명 · 졸업년도 · 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고문회비

▲김은하(52정치)= 30
▲남상용(49전문)= 50
▲류근창(50전문)= 50
▲문태식(49전문)=100
▲송석구(62철학)=100

◇부회장회비

▲고한준(88행원)=100
▲구자선(81경원)=100
▲구재태(67경행)=100
▲권석충(70정외)=100
▲김기재(93행원)=100
▲김대원(70경행)=100
▲김동길(61경제)=100
▲김동정(57법학)=200
▲김법조(73불교)=100
▲김삼용(56불교)=50
▲김영환(62경제)=100
▲김양일(63정외)=100
▲김용백(62법학)=850불
▲김일윤(92경원)=100
▲김재국(63법학)=100
▲김재기(60경제)=100
▲김진선(74행정)=100
▲김형성(61경제)=100
▲김희옥(72법학)=100
▲남기일(72경영)=100
▲류영수(66행정)=100
▲박광신(65경제)=100
▲박도근(65상학)=100
▲박두일(66정외)=500불
▲박상규(61국문)=100
▲박완일(61불교)=100
▲박재수(69사학)=100
▲박준형(63경제)=200
▲백경남(65정외)=100
▲서정호(76경영)=100
▲신상두(64법학)=100
▲신윤표(65행정)=100
▲안보순(91행원)=100
▲원용선(63영문)=100
▲유월탄(68불교)=100
▲윤부성(63생물)=100
▲윤산학(66법학)=100
▲윤천영(66농학)=100
▲이광세(88경원)=100
▲이능희(65상학)=100
▲이두철(91지원)=200
▲이무영(71행정)=100
▲이상윤(98일원)=100
▲이석용(58정치)=100
▲이제곤(68경제)=100
▲이학래(62법학)=100
▲이형집(85경원)=100
▲이화일(65상학)=200
▲임덕규(60법학)=100
▲장장순(65법학)=100
▲장형식(60정치)=100
▲전순표(57농학)=100
▲정상영(61법학)=200
▲정운경(60국문)=10
▲정인악(60화학)=100
▲조은구(68경제)=100
▲조희영(63경영)=100
▲차경훈(65경제)=1000불
▲하혜원(67영문)=850불
▲홍월표(69법학)=100
▲홍평우(70경영)=100

◇감사회비

▲강의현(60경제)=100
▲이은갑(74경영)=100
▲이재형(68불교)=100

◇지도위원회비

▲김제국(61경제)=30
▲김현해(72불교)=30
▲마경자(53국문)=30
▲민태진(60화학)=30
▲박현성(73행원)=30
▲방지하(71인철)=30
▲백봉흠(61법학)=30
▲안철환(52경제)=30
▲우순이(60정외)=30
▲유현목(49전문)=30
▲윤일균(69행원)=30
▲이혜총(72불교)=30
▲인중식(57경제)=30
▲전운덕(63경제)=30
▲정해수(49전문)=30
▲조 규(77경원)=30
▲최춘지(57법학)=30
▲한영휘(61경제)=30
▲홍치유(63물리)=30
▲황규선(85일원)=30
▲황용운(54경제)=30

◇운영위원회비

▲공진식(61경제)=100
▲김기유(80행정)=100
▲김만진(92경원)= 2
▲김문영(93경원)=100
▲김배근(63경제)=100
▲김성수(61경제)=100
▲김창규(84법학)= 20
▲김창종(71경제)= 10
▲류승희(72경영)=100
▲박병욱(90행원)=100
▲박수열(91행원)=100
▲백문기(63법학)= 10
▲서문양(97경원)=100
▲손경식(74법학)= 10
▲손상출(84행원)=100
▲양정오(81행원)=100
▲윤행순(65행정)= 20
▲윤홍섭(72상학)= 10
▲이기화(59경제)=100
▲이새배(70식공)= 2
▲이시우(93행원)=100
▲이윤종(59법학)=100
▲이창식(66사학)= 10
▲정현화(66상학)=100
▲조성운(56경제)=100
▲지홍재(58경제)= 20
▲최성균(60법학)=100
▲최용관(64상학)=100
▲하만장(92경원)=100

◇분과위원장회비

▲김진문(71경영)=100
▲염현섭(77연영)= 50
▲정성렬(77연영)=100
▲장동락(77정외)= 50

◇상무이사회비

▲강영권(81법학)=20
▲고수곤(98언론)=20
▲김규식(69정외)=20
▲김길배(80경행)=20
▲김동성(81정외)=20
▲김동진(79법학)=20
▲김만수(66정외)=40
▲김문재(98행원)=20
▲김선정(76행정)=20
▲김성수(68경행)=20
▲김성환(64경제)=20
▲김윤근(82경원)=20
▲김종옥(64철학)=20
▲김행기(62국문)=20
▲남형수(75경행)=20
▲민경봉(64법학)=40
▲박만갑(68정외)=20
▲박수현(84경행)=20
▲박재승(69경행)=20
▲박정영(67정외)=20
▲배종대(62철학)=20
▲서상열(98행원)= 2
▲선상규(72응생)=20
▲성장현(행원)=20
▲송건범(59사학)=20
▲송재운(64철학)=20
▲신만근(67경행)=20
▲신승길(63경제)=20
▲심경모(61영문)=20
▲심응석(79경행)=10
▲양성철(80경행)=20
▲오정석(79농학)=20
▲윤대흠(61정외)=20
▲윤태준(92경제)=20
▲이강식(93불원)=20
▲이범진(69정외)=10
▲이병곤(일원)=20
▲이승영(68상학)=20
▲이용식(64농학)=20
▲이윤근(81경행)=40
▲이윤훈(81정외)=40
▲이주삼(63정외)=20
▲이채욱(64정외)=20
▲이홍태(98행원)= 2
▲장명근(64법학)=20
▲전영화(69경행)=20
▲정용길(67행정)=40
▲정재기(68정외)=20
▲정태수(73행원)=20
▲정학주(72법학)=20
▲조종학(65경제)=20
▲차중근(68상학)=20
▲최규수(71경행)=20
▲한정규(98행원)=20
▲한창호(70경행)=20
▲허길남(67응생)=20
▲허남석(98행원)=20
▲허상구(80경원)=20
▲홍사현(63사학)=20
▲홍원표(68정외)=20
▲황길원(98행원)=20

◇이사회비

▲강무남(68경영)=20
▲강석진(63경제)=10
▲강진수(89법학)=10
▲고병현(59경제)=10
▲권중원(68상학)=10
▲길 육(72행원)=10
▲김경오(94지원)=10
▲김교근(65경영)=10
▲김귀식(72화학)=20
▲김대용(67경제)=10
▲김만석(72화학)=10
▲김병만(62국문)=10
▲김보현(78불교)=10
▲김사성(73국교)=10
▲김상구(77경행)=10
▲김성식(64농경)=10
▲김영목(70경행)=10
▲김영화(67경행)=10
▲김영희(79식공)=10
▲김왕식(76통계)=20
▲김용태(67식공)=10
▲김용호(75응경)=20
▲김익호(90정원)=10
▲김인수(80농학)=10
▲김인순(81경원)=10
▲김종범(66경제)=10
▲김종일(58법학)=20
▲김진기(82전산)=10
▲김진억(80경영)=10
▲김형일(70경행)=10
▲김홍천(83경행)=10
▲류재선(70농경)=10
▲문효치(66국문)=10
▲민영식(61경제)=10
▲박낙원(61정외)=10
▲박남규(69행정)=10
▲박수웅(66농경)=10
▲박영환(49문학)=10
▲박정기(85경제)=10
▲박종한(78경행)=10
▲박천화(80경행)=10
▲방재홍(81경원)=10
▲백성길(86법학)=10
▲서동호(66법학)=10
▲서상찬(97지원)=20
▲성진경(62법학)=10
▲신관호(73경제)=10
▲신동민(66상학)=10
▲신동옥(94불원)=20
▲신흥래(85국문)=10
▲심춘섭(61정외)=10
▲안병민(72토목)=10
▲양영훈(67경영)=20
▲어청수(80경행)=20
▲오경종(76경행)=10
▲왕표순(49정외)=20
▲우동휘(59경제)=10
▲원기영(64상학)=20
▲원용근(71경제)=10
▲위종성(71농학)=20
▲유창일(63경영)=10
▲윤석순(76성외)=10
▲이대연(67농경)=20
▲이동우(61법학)=10
▲이병선(89사학)=10
▲이신백(75농학)=10
▲이영일(73행원)=10
▲이인정(72상학)=10
▲이인진(62법학)=10
▲이정규(60정외)=10
▲이정순(59영문)=10
▲이종우(63경제)=10
▲이종주(62법학)=10
▲이주형(65경제)=10
▲이창억(52정외)=10
▲이청준(71경행)=10
▲이현경(95행원)=10
▲장수정(67임학)=10
▲전신섭(91경원)=10
▲전육주(67농생)= 2
▲정동호(77정외)=20
▲정민용(49문학)=10
▲조정호 =10
▲조희재(67식공)=10
▲채남술(70법학)=10
▲최 인(68상학)=10
▲최광화(79경행)=10
▲최도윤(68법학)=10
▲최준영(94산원)=10
▲최해일(91행원)=10
▲편영배(94산원)=20
▲한성규(69물리)=10
▲홍성숙(65불교)=10
▲홍순팔(71경제)=10
▲황래열(78체교)=10
▲황성준(78법학)=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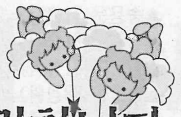
◇일반회원회비

▲강광호(98불원)=2
▲강성인(93경원)=2
▲강성채(83경행)=2
▲강신학(97행원)=2
▲강영수(96불교)=2
▲강태동(74통계)=2
▲강태석(56경제)=2
▲강태원(95컴공)=2
▲고민수(73농경)=2
▲고시무(71법학)=2
▲고영희(64농경)=2
▲고재구(72경영)=2
▲고주희(98영문)=2

▲공화진(75농경)=2
▲곽광현(86경원)=2
▲곽영진(91경행)=2
▲곽우송(85경원)=2
▲곽태영(71법학)=2
▲구갑회(91행원)=2
▲구수영(64국문)=2
▲구윤관(82회계)=2
▲구자영(71화학)=2
▲구희두(51영문)=2
▲권순오(63화학)=2
▲기인종(73경제)=2
▲김경률(79경영)=2
▲김광호(53국문)=2
▲김교일(87경원)=2
▲김규훈(69경행)=2
▲김기현(83경원)=2
▲김남북(73공경)=2
▲김남중(63상학)=2
▲김남중(78행원)=2
▲김도용(73건축)=2
▲김동진(96지원)=2
▲김동호(97경제)=2
▲김명길(74공경)=2
▲김문환(81행원)=2
▲김민규(90한원)=2
▲김민성(65화학)=2
▲김병기(87법학)=2
▲김보열(61경제)=2
▲김복출(96경원)=2
▲김복희(72경제)=4
▲김붕규(95지원)=2
▲김붕점(86경원)=2
▲김상규(98국제)=2
▲김석산(84법학)=2
▲김성보(93지원)=2
▲김세정(83행정)=2
▲김세정(83행원)=2
▲김소송(83회계)=2
▲김수기(65경제)=2
▲김수한(94불원)=2
▲김순점(86경원)=2
▲김시상(경원40)=2
▲김영만(82경원)=2
▲김영수(90한의)=2
▲김영제(82경행)=2
▲김영진(98예원)=2
▲김영춘(80정외)=2
▲김영필(66응생)=2
▲김용구(74농경)=2
▲김용래(95경영)=2
▲김용우(98행원)=2
▲김원철(언론95)=2
▲김윤경(63법학)=2
▲김윤남(95경원)=2
▲김익배(86무역)=2
▲김인태(61영문)=2
▲김정규(71상학)=2
▲김종덕(64경제)=2
▲김종백(44혜전)=2
▲김종선(69국문)=2
▲김종욱(75행원)=2
▲김종웅(98국제)=2
▲김종진(91경원)=2
▲김종헌(97예원)=2
▲김종호(70입학)=2
▲김주작(65철학)=2
▲김지권(86영문)=3
▲김진권(94지원)=2
▲김진성(90전산)=2
▲김진수(81정외)=2
▲김진영(90산공)=2
▲김창기(97경원)=2
▲김채연(71법학)=2
▲김철용(72행원)=2
▲김태오(88행원)=2
▲김태혁(81경제)=2
▲김태홍(68농학)=2
▲김학련(91경원)=2
▲김해근(64임학)=2
▲김해동(59불교)=3
▲김현구(76식공)=2
▲김현철(92회계)=2
▲김형태(65불교)=2
▲김호근(61사학)=4
▲김홍주(62경제)=2
▲김화섭(68법학)=2
▲나병욱(71농경)=2
▲남명희(98행원)=2
▲남병국(64법학)=2
▲남재우(69경영)=2
▲노창희(69법학)=2
▲류혜숙(76사교)=2
▲류홍수(52영문)=2
▲류희진(68임학)=2
▲문경식(95경원)=2
▲문대성(59정외)=2
▲문병욱(경원40)=2
▲문봉구(61경제)=2
▲문송국(85회계)=2
▲문진영(98한의)=2
▲문창모(63사학)=2
▲민오납(94행원)=2
▲박광원(56정외)=2
▲박광정(94산공)=2
▲박기덕(73경행)=2
▲박내학(95경제)=2
▲박두호(67경행)=2
▲박봉춘(85경제)=2
▲박상옥(91경원)=2
▲박석윤(96경원)=2
▲박성희(78경제)=2
▲박연식(68식공)=2
▲박영길(66화학)=2
▲박영희(90경원)=2
▲박재원(68경제)=2
▲박재현(90지원)=2
▲박종민(88미술)=2
▲박주환(84행원)=2
▲박청규(79경행)=2
▲박태순(85수교)=2
▲박합수(90회계)=2
▲박형구(73경영)=2
▲박흥서(72통계)=2
▲방주석(66불교)=2
▲방춘재(64경영)=2
▲배석진(81행원)=2
▲배장현(61사학)=2
▲백경애(96정산)=2
▲백승엽(72경제)=2
▲백승운(91경영)=2
▲백영재(64국문)=2
▲백우현(70화하)=2
▲변종민(74무역)=2
▲사상철(62국문)=2
▲서병수(62경제)=2
▲서성민(80영문)=2
▲서영준(95한의)=2
▲서인석(87한의)=2
▲서재영(88역교)=5
▲서창하(57법학)=2
▲설상동(86불교)=2
▲성영모(72건축)=2
▲성정기(51정외)=2
▲손동성(88경영)=2
▲손승준(88경영)=2
▲손창수(87한의)=2
▲손호중(93행원)=2
▲송규철(65경제)=2
▲송낙영(94경원)=2
▲송대섭(60경제)=2
▲송부자(65사학)=2
▲송순식(87경원)=2
▲송영근(88영문)=2
▲송용운(71행정)=2
▲송완식(81승가)=2
▲송인만(81법학)=2
▲송진운(88경원)=2
▲승원표(경원25)=2
▲신광우(90정원)=2
▲신교봉(87임학)=2
▲신동기(78체교)=2
▲신명식(97정원)=2
▲신서춘(65정외)=2
▲신수열(61경제)=2
▲신용만(99경원)=2
▲신정균(90언론)=2
▲신정식(91한의)=2
▲신정철(67경영)=2
▲심용택(71경영)=2
▲심재호(87법학)=2
▲안 일(51정외)=2
▲안경수(63상학)=2
▲안길상(97경원)=2
▲안동운(98행원)=2
▲안병민(82전산)=2
▲안병수(62경제)=2
▲안병욱(75토목)=2
▲안성원(95경원)=2
▲안수일(87미술)=2
▲안윤섭(84회계)=2
▲안정임(86일원)=2
▲안창영(64임학)=2
▲안희백(78토목)=2
▲양계자(79경원)=2
▲양금식(65행정)=2
▲양낙운(95행원)=2
▲양문승(83행원)=2
▲양병칠(77임학)=2
▲양상일(79전자)=2
▲양세열(69경제)=2
▲양의환(53경제)=2
▲양일창(88법학)=2
▲양정기(73통계)=2
▲양정모(84수교)=2
▲어규선(91임학)=2
▲엄만용(75건축)=2
▲여인근(64임학)=2
▲여인선(64상학)=2
▲연구철(89경원)=2
▲염상윤(64정외)=2
▲오동익(61경제)=2
▲오만식(92정원)=2
▲오병훈(63법학)=2
▲오주환(61정외)=2
▲오창범(93지원)=2
▲옥봉규(72행원)=2
▲우제태(71법학)=2
▲우종구(81경원)=2
▲원영산(63경제)=2
▲유 현(72농경)=2
▲유도준(61법학)=2
▲유병완(68상학)=2
▲유봉규(75농학)=2
▲유성종(61정외)=2
▲유승룡(83건축)=2
▲유영문(86불교)=2
▲유영택(99행원)=2
▲유종상(98행원)=2
▲유준식(80무역)=2
▲윤경덕(63법학)=2
▲윤광수(지원15)=2
▲윤만진(96경원)=2
▲윤성렬(95경영)=2
▲윤성호(68법학)=2
▲윤종기(83경행)=2
▲윤종락(65상학)=2
▲윤종원(87한의)=2
▲이경관(64국문)=2
▲이광준(93정외)=2
▲이규남(62국문)=2
▲이규현(85한의)=2
▲이기송(경원49)=2
▲이기형(91경원)=2
▲이덕근(89전산)=2
▲이도호(63불교)=2
▲이돈혁(84전산)=2
▲이만주(73농학)=2
▲이무근(93지원)=2
▲이병구(53정외)=2
▲이병국(73경행)=2
▲이병길(71화학)=2
▲이병용(99경원)=2
▲이병준(71상학)=2
▲이복구(68농학)=2
▲이복우(81승가)=2
▲이부원(62농학)=2
▲이상기(92행원)=4
▲이상노(89경행)=2
▲이상연(94불원)=2
▲이상율(89교원)=2
▲이상훈(80화공)=2
▲이성근(75경행)=2
▲이성우(94지원)=2
▲이수엽(89철학)=2
▲이숙경(93철학)=2
▲이승복(92경행)=2
▲이승원(76식공)=4
▲이연구(97경원)=2
▲이영호(84승가)=2
▲이용광(86경원)=2
▲이용우(91지원)=2
▲이용택(68상학)=2
▲이의일(68연영)=2
▲이익성(79철학)=2
▲이재경(98불아)=2
▲이재봉(68물리)=2
▲이재호(81경원)=2
▲이정권(96경원)=2
▲이정기(88행원)=2
▲이정우(61영문)=2
▲이종석(71행정)=2
▲이종춘(90정원)=2
▲이중량(58정외)=2
▲이중범(98경원)=2
▲이중석(74경행)=2
▲이중양(80통계)=2
▲이창근(76체교)=2
▲이창수(69임학)=2
▲이태희(80행원)=2
▲이한모(93사회)=2
▲이한영(경제58)=2
▲이해갑(농경)=2
▲이해방(60화학)=2
▲이현수(61임학)=2
▲이현수(63국문)=2
▲이현중(61영문)=2
▲이호건(79행원)=2
▲이호영(91경원)=2
▲이희각(57법학)=2
▲인기승(81승가)=2
▲임경랑(지원12)=2
▲임국희(88산공)=2
▲임애란(86가교)=2
▲임재민(75농경)=2
▲임종출(86화공)=2
▲임종홍(88경원)=2
▲임진섭(84정외)=2
▲임창빈(99경원)=2
▲임창순(79통계)=2
▲임치유(85한의)=2
▲임향근(65경제)=2
▲임혁우(지원13)=2
▲장경풍(87경원)=2
▲장세기(63상학)=2
▲장일상(78임학)=2
▲장진화(98행원)=2
▲전연성 =2
▲전익흥(88법학)=2
▲전재영(38중불)=2
▲전정환(83행원)=2
▲전제혁(92한의)=2
▲정금희(73행원)=2
▲정남기(68경제)=2
▲정명환(90경영)=2
▲정보현(66법학)=2
▲정석구(49문학)=2
▲정순기(91국윤)=2
▲정영택(92무역)=2
▲정영화(지원13)=2
▲정윤훈(60법학)=2
▲정재수(경원46)=2
▲정재형(84연영)=2
▲정종철(경원23)=2
▲정종학(96정보)=2
▲정증식(82공경)=2
▲정학진(76공경)=2
▲정해은(90지원)=2
▲제윤종(85전기)=2
▲조남진(96행원)=2
▲조백현(57정외)=2
▲조승완(88건축)=2
▲조영모(87경영)=2
▲조운연(95경원)=2
▲조인희(70행정)=2
▲조태호(60정외)=2
▲조하성(84경행)=2
▲주명옥(65농학)=2
▲주창순(80전자)=2
▲지연희(예원6)=2
▲지정식(69상학)=2
▲진숙현(66정외)=2
▲진용익(87경원)=2
▲진창훈(70상학)=2
▲차강국(87회계)=2
▲차수런(68정영)=2
▲채종구(87한의)=2
▲천태준(94경제)=2
▲최동선(63경제)=2
▲최민석(74법학)=2
▲최선우(73경행)=2
▲최승욱(87무역)=2
▲최영집(52영문)=2
▲최예형(57법학)=2
▲최우봉(86전산)=2
▲최원두(62국문)=2
▲최철수(73무역)=2
▲최해룡(63법학)=2
▲최형식(89행원)=2
▲최호열(83경행)=2
▲하경호(88경원)=2
▲하근수(71법학)=2
▲하승룡(85물리)=2
▲하종권(83영문)=2
▲한기남(59화학)=2
▲한상인(73토목)=2
▲한선호(72경행)=2
▲한창옥(62영문)=2
▲한태영(법학)=2
▲홍광원(85식공)=2
▲홍석곤(72토목)=2
▲홍성욱(68식공)=2
▲홍순용(71경영)=2
▲홍순창(65연영)=2
▲홍순흔(62영문)=2
▲홍의식(94경영)=2
▲홍한표(경영)=2
▲황 중(61경제)=2
▲황동현(81경행)=2
▲황원구(69농학)=2
▲황정부(95행원)=2
▲황조연(74경영)=2
▲황진배(91정외)=2

〈끝〉

특/별/기/고



타국땅 미국에 와서 인생을 생각합니다

강한석 동문 부부의 눈물어린 고백



강한석(55 불교)동문

무수한 사람들이 인간 무대를 다녀갔지만 이 반납(返納)의 법칙을 어긴 사람은 아직 역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토록 소중(所重)한 자기 육신마저도 진정 자기 것이 아니건만, 쓰고 없애는 물건을 자기것인양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가 하면 남의 인격(人格)과 자유까지도 영원히 묶어 두려는 무지(無知)한 억지를 쓰지 않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주변의 장애인을 한번쯤은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여기 미국 땅에 와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과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가슴에 새기며 만리 타향의 나날을 보냅니다.

『眞實은 삶의 참된 빛이고, 勇氣는 그 빛을 찾는 힘이다』

내가 한평생 신앙(信仰)처럼 의지해 온 것이 바로 이 좌우명(座右銘)입니다. 삶의 지평(地平)에는 때로는 기쁨이 또 때로는 절망(絶望)과 허탈(虛脫)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때이고 진실과 용기로 나의 생활을 구현(具現)해 온 마음의 지주(支柱)는 늘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육순(六旬)을 넘긴 지 여러 해가 되도록 나는 늘 보람 속에 지낼 수 있습니다.

1996년 4월 6일은 우리 두 부부가 먼 여정에 오른 날이었습니다. 열일곱시간을 기내(機內)에서 보내며 지난 세월(歲月)을 돌이켜 생각하며 깊은 명상(瞑想)에도 잠겨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餘生)을 보낼 미국이라는 넓은 대륙(大陸) 한 모퉁이 텍사스주(Texas주는 남·북한 전체 면적의 8배나 됨)에 와서 언어(言語)의 장벽(障壁)과 외로움을 되씹으며 하나 남은 자식(仁奎)하고 두 손자(Steven 병철, Sany 병욱)와 같이 산다는 것이 어찌보면 행복한 여생(餘生)이 될 지 모르지만 마음 한 구석은 멍이 들어 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 죽는 것을 참척(慘慽)이라 하지 않습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부정(父情)의 절절함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사랑하는 아들 찬규(정신 지체)를 잃은 슬픔을 되새겨야 하는 잔인한 8월이 또 지나갔습니다.(8월 31일은 아들 찬규가 사고로 제 곁을 떠난 날입니다) 사고(事故)로 갑자기 유명(幽明)을 달리한 내 아들의 32년간 生! 초등학교 4학년때 나의 불찰(不察)로 장애인(障碍人)이 되었으니(등산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짐)……

속세(俗世)의 인연으로 부자(父子)의 연(緣)을 맺었거늘 어인 연고로 세간(世間)의 정을 나눈 기간이 그리도 짧았더란 말입니까? 인생이 한조각 부운(뜬구름)이라더니 사라지는 구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찍이 당대의 고승(高僧) 경허선사께서도 한암스님과 헤어지면서 『덧없는 인생은 늙기 쉽고 좋은 인연(因緣)은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이별의 쓸쓸한 마음이야 더 어떻다고 말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시며 슬퍼하셨답니다.

생사(生死)를 초월한 도인(道人)의 심정도 이러하였는데 하물며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미망중생(迷忘衆生)인 이 아비가 찬규와 사별한 그 아픔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는 이미 정해져 있던 숙명(宿命)이라 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 제불보살(諸佛菩薩)의 큰 뜻이 이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慈悲)속에 생사우비고뇌(生死憂悲苦惱)의 굴레를 하루속히 벗어 던질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규야! 이제 이 아비는 정신을 차려 먼 이국(異國)땅에서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으로 남은 여생(餘生)을 봉사라는 명제(命題)를 풀어 나가려 하다.

너의 보살(菩薩)과 같은 마음씨는 이미 여러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씨앗을 뿌렸을 것이다.

너는 이 부모에게 생사의 덧없음을 생생이 보여 줌으로써 화택(火宅)에 살면서 아직도 무명(無明)속에 허덕이는 어리석은 이 부모를 구제하려 하였던 큰 보살이였음을 이제야 알겠구나.

진정(眞情)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두 부부의 남은 여생을 축복해 주니 이 어찌 너의 효행(孝行)이 아니겠느냐! 남은 여생 우리 두 부부는 너의 효(孝)의 뜻을 이곳 미국땅 텍사스에서 너와 같은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적(獻身的)인 봉사로 조국 대한민국을 그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조국의 장애인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뜻깊은 일을 할 것이다. 이제 너와의 세간(世間)의 인연(因緣)이 다하였으니 우리 두 부부는 너를 잊을까 한다. 잊혀지지 않을지라도 잊겠으니, 정녕 잊을 수 없을지라도 잊겠으니 명이 다 할 때까지 잊겠다는 말을 되풀이할지라도 끝내는 잊게끔 노력하겠다.

참으로 슬프다.

창밖에 보이는 산야는 저리도 싱싱하게 푸르름을 뽐내고 있것만 회색빛 한줌의 재로 남은 마지막 너의 모습은 왜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로만 이 못난 아비의 뇌리(腦裏)에서 지워지지 않는지, 이제 우리 두 부부는 슬픔을 거두려 한다.

『온 것이 아니니 간 것도 아니다』라는 역대조사(歷代祖師)의 한결같은 법어(法語)의 의미를 점녕 깨우치고 말 것이다.

너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너의 죽음을 애도하시던 수봉재활원 김동극 원장님과 자혜학교 강홍립 교장선생님, 너를 사랑하고 아끼시던 여러 선생님들과 살아 남은 이 부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한 많은 이들의 고마움을 말이다.

너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밤새워 기원하며 잠시도 쉬지 않은 채 삼세제불(三世諸佛)의 무상법어(無上法語)를 들려주신 여러 스님들 특히 49祭를 제전(祭典)한 지홍법사의 애송과 너의 죽음 앞에 통곡하시던 이 아비의 누님들……

마지막으로 너의 이름! 이름을 불러 보고자 한다.

찬규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찬규야.

다시는 이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을 극락정토(極樂淨土)에 태어나라!



여유로운 삶 아름다운 삶



방원석(58 정외)등문

(주)영림전설 부회장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도시의 곳곳에는 푸른 나무와 잔디가 심어진 조경 시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으레 기로 지르는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더러 자투리 땅이 있어 활용한 것을 보기도 한다. 이러한 녹지 공간 확보와 휴식처 마련은 주거 환경의 순화를 위한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주위에도 푸른 나무와 꽃과 잔디가 심어져 있고, 긴 의자와 간단한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기구 등이 마련되어 있어, 그러한 녹지가 공기마저 맑게 해주는 듯하여 신선한 정감을 일게도 한다.

잔디밭은 사람이 밟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보호까지 하고 있다. 비록 얕게 친 울타리이긴 하지만 옆으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번듯하게 나 있어서 그곳으로만 다녀 준다면 수목이나 잔디는 잘 자라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나다 보면 몇 발자국 돌아가지 않으려고 울타리를 넘어 예시로 잔디를 밟고 지나 다닌다. 더구나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지름길을 따라 거의 대부분의 잔디를 밟고 다닌다. 짓밟힌 나무가지와 잔디는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시들어가고 뭉개져 있다. 돌아가는 길모퉁이는 거의가 그러해서 딱하고 답답하다.

한국 사람은 성급하다지만 무엇이라 설명하고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어느 외국인은 "빨리 빨리 나라"라고 우리를 부른다는 말도 있다. 아무것이나 쉽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편하게만 이루어 보려는 지각없는 행동이 장차 무슨 결과를 부를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길거리의 짓밟힌 잔디는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성급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 어런 버릇이 이느때라야 고쳐질까 생각한다.

네모난 모서리 길은 차라리 곡선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성있어 보이는데 어떤 아파트 입구에는 그렇게 고쳐서 잔디도 보호하고 사람에게도 편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짓밟힌 잔디를 안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아예 지름길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게도 한다. 외국에서도 단속과 통제보다는 아예 길을 터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느날 모대학 캠퍼스를 찾았을 때 놀라운 일을 보았다. 교문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중앙 분리대처럼 설치되어 있는 상록수와 잔디밭이 비참하리만큼 밟히고 밟혀서, 뿌리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지경으로 되어 있었다. 명색이 지성의 전당이란 대학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는 더 할 말이 없다.

고사에 "君子不由徑" 이란 문구가 있다. 군자 즉 뜻 있는 사람은 지름길을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길은 정해진 길로 다녀야 마땅하다는 경구이다.

수백년 걸쳐 이루어진 서구 문명을 단시일내에 받아들여 접목하다보니, 여러 가지 사안이 그러하지만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정치제도만해도 지름길을 더듬어 온 폐단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말로만 민주의식이고, 실행과 이론이 상반된 지도자연하는 사람들의 허구성은 짓밟힌 잔디를 보는 느낌이다. 옛부터, 급히 먹은 밥 번소에가 보라 하였다. 소화불량이 돼서 배설된 것을 보라는 뜻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위를 보고 배울것이 많아야 젊은 세대들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

공원 잔디밭에 바람에 날려 들어간 모자를 잔디를 보호하자는 팻말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서 있는 소년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있었다. 신사가 지팡이로 건져주는 장면의 그림이 있었지만 나는 그 그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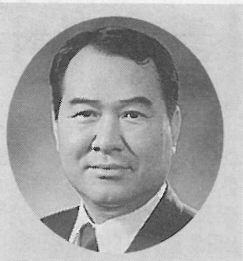
너무 지름길을 좋아하면, 인생도 지름길로 허망한 종말을 맺는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허구한 날 보아 온다. 빨리 가려다가 먼저 떠나 가는 일들을……

더디기는 하지만 오늘의 삶의 지름길을 피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느긋한 여유가 어느 때 보다도 아쉬워지는 때이다.

그렇다. 잔디를 밟아 죽이는 길. 그런 지름길만은 이제 그만 피해야 할 듯 싶다.

동문 기업 소개

SEG 삼창기업 주식회사



이두철(91 지원)동문
삼창기업(주) 회장

이두철 동문은 모교 지역개발대학원과 HARVARD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모스크바 산업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동문은 WHO'S WHO MEMBER로 등재되어 있으며,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이사, 대한적십자사 대의원직을 맡아 봉사활동을 함은 물론, 현재 울주문화원장으로 지역문화사업에도 여념이 없는 등 사업과 사회활동으로 하루가 모자랄 정도다.

삼창기업주식회사는 지난 74년 5월 현풍엔지니어링을 창립하여 당시 계측제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오직 기술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일념으로 국내에서 가장 뒤떨어진 산업설비 자동제어분야에 뛰어들었다. 이후 끊임없는 기술 축적으로 고도의 첨단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을 요하는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분야의 계장설비공사와 시운전 공사에 참여하여 기술 축적과 함께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하였다.

불과 종업원 8명의 회사에서 지금은 700여명의 사원 중 약 400여명의 기술 인력들이 각 원전에 파견돼 인체의 두뇌같은 원전의 가동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도 500억원으로 대기업에 버금가는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발전했다.

삼창기업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원전의 계측제어설비시



공과 시운전, 보수공사, 설비개선 공사 그리고 선진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설비유지보수에 관한 신기술 개발과 설비국산화 개발이다.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난 92년에 경기도 안양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매년 매출액의 3-4% 이상을 연구비로 투자하여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부품국산화를 시도해 오고 있다.

특히 96년 8월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제로 채택된 디지털 조속기시스템(발전소 터빈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은 한전의 시원과 미국 WOODWARD사의 기술 협력을 받아 지난 98년 개발하여 연간 3000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왔다.

삼창기업(주)는 원전 계측제어설비 분야에 대한 십수년간의 기술 경험과 국내외의 각종 공사를 맡아오면서, 신용과 기술을 바탕으로 축적된 기술을 인정받아 88년 과학기술처에 전문기술 용역업 등록, 한국 전력공사로부터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관련 계측제어설비 전문업체 자격을 취득한 후 고도의 첨단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을 요하는 원자력 발전소 전문기술 용역업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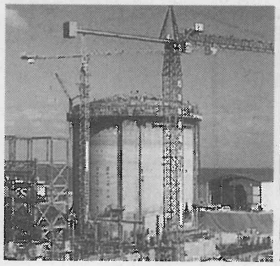
사업 다각화

이와 함께 삼창기업(주)는 사업 다각화에 적극나서 89년 3월 무역업무를 개시하는 한편, 90년 5월에는 자회사로 삼창기술(주)를 설립해 기자재 공급 사업을 시작했다. 아울러 92년 10월 자동제어설비 공장 등록을 해 명실공히 설계에서부터 시공, 시운전, 정비 제조와 공급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어분야의 전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ONE CYCLE SYSTEM을 구축해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기하고 있다. 특히 93년 발족한 트리메탈코리아(주)는 울산시 웅촌면 3000여평의 대지에 공장을 건립하여 94년 12월 3일 국내 최초로 TRI-METAL 시제품을 생산하는 개가를 올렸다.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로 원자력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다하겠다」는 집념으로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 설비분야에서 설계, 시공, 시운전 유지 정비, 주요 기자배 공급 및 제어설비 국산화 개발을 위한 효율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체제를 구축해 최정상급의 원자력 분야 전문회사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이동문은 제일 우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한국 전력공사를 통해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독일의 BACOCK, WELLAND & TUXHORN, BENKE



원자력 시공



산업설비 시공

INSTRUMENT & ELECYRO, 프랑스의 알스톰, 미국의 VICTOREEN, WOODWARD, IONICS사 등 세계적인 기업과 기술제휴 및 대리점 계약을 통해 기술 협력체제를 갖추고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삼창의 미래

삼창기업(주)는 미래의 부푼꿈을 안고 있다. 90년 이후 평균 매출액 신장율이 70% 가까운 추세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96년을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설정하여 95년 실적 234억 대비 120% 상향된 약 51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99년 1100억, 2000년 1200억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동안 추진해왔던 제어계측분야의 자동화,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WTO 무한 경쟁시대에서 항상 이분야 최고의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중국, 북한 등)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의 방향을 정보통신분야로 설정하여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용기기 제조 등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 경영 계획 달성은 무난하리라 보여진다.

삼창의 사회 환원

이동문은 그의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온산면 삼평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며 모교인 삼평초등학교에는 울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설치해주는 한편, 남창중고교에는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매월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생활 철학이라는 이회장은 『발을 딛고 다니는 곳에는 땅세를 내야 한다』며 직원들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원전과 화학공장 18개 주변 마을에 매월 정기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등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에도 적극 나서는 '따뜻한 기업인'으로 존경받고 있다.

수상내역

이회장은 이같은 끝없는 신기술 개발의지와 원자력 발전분야에 대한 정열은 여러 곳에서 인정을 받아왔다. 그 결과 95년 2월 21일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원자력기술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같은해 4월 21일 제28회 과학의 날에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진흥유공 산업포장을 수훈하였다.

특히 96년 10월 11일 이동문은 계측제어분야의 국산화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경향 전기·에너지 대상을 수상, 이 상의 역대 수상기록에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등록되는 일대 기록을 남겼으며, 98년 3월에는 상공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트리메탈코리아(주)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국산제품은 품질이 조잡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선입견을 없애야 합니다』

TV 브라운관 핵심부품인 TRI-METAL을 개발 생산하는 트리메탈코리아(주) 대표인 이두철(91 지원·지역개발대학원 동문회 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돼 지난 10월 8일 벤처플라자 개막에 앞서 열린 제1회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울산시로부터 금상을 수상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컬러브라운관 핵심부품인 트리메탈(TRI-METAL)을 개발해, 지난 95년 당시 가전업계에 큰 화재를 불러 일으켰던 트리메탈코리아(주)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브라운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부품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점을 감안, 수입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국산화 개발에 착수, 회사 설립 이듬해인 95년 5월 생산공장 준공식을 가져 가전업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트리메탈은 한국전자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컬러브라운관에 사용되는 정밀소재로서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이 다른 고팽창재와 저팽창재를 연속 용접에 의해 하나의 금속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트리메탈코리아가 생산하는 소재는 컬러 브라운관의 화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첨단소재로 생산공장 준공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IMF 한파로 모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트리메탈코리아는 이두철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1백65억여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특히 이 회사는 수출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82.6%를 차지할 만큼 수출에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7년에는 컬러 브라운관용 트리메탈 제조 특허권과 ISO 9002 인증을 받았고 기계류, 부품, 소재 품질인증(EM), 신기술인증서(NT), 국산신기술인증서(KT) 등도 획득했다.

현편, 트리메탈코리아는 이날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해 부상으로 3백만원의 상금과 함께 울산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신청시 우선지원 대상의 가점을 부여받고 코리아 엑스포트지에 생산제품의 소개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불교종합병원 착공식 거행

총 1천병상, 연건평 2만7천평, 지하 2층 · 지상 12층 규모



2천만 불자의 염원사업으로 지난 94년 이후 추진돼어온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착공식과 축하공연이 권노갑(53 경제 · 국민회의 고문)총동창회장과 오록원 이사장, 송석구(62 철학 · 본회 고문)총장등 2천여명의 동문 및 불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4일 일산의 식사동 병원부지에서 열렸다.

모교가 주최하고 불교종합병원 건립행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총동창회, 조계종, 종단협, 고양시를 비롯해 교계, 언론계의 후원과 협찬을 받아 오후 2시 착공식, 3시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착공식은 홍승기(무역학과)교수의 사회로 ▲경과보고 및 건물개요 설명회 ▲홍보영화 상영 ▲오록원 이사장 치사 ▲송석구 총장 식사 ▲권노갑 총동창회장 축사 ▲내빈 축사 ▲착공축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축하공연은 불자 개그맨 김병조씨의 사회로 국악인 신영희, 불자가수 장미화와 동국국악예술단(단장=박상진 교수)등이 참여하는 사물놀이 한판 등이 진행돼 2천여 참석자들과 함께 불교종합병원의 무사 완공을 기원했다.

오록원 이사장은 치사에서 『대학은 학문의 연찬과 인격의 도야를 통하여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지성의 산실이다. 이러한 대학 교육의 명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국대학교가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특히 불교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대원을 일산 신도시에 펴나가게 된 것은 우리 대학의 중흥을 위해서나 일산 신도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역사를 통하여 동국발전의 이상을 역동적으로 실현하고 더불어 한국불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단, 재단은 물론 전 불교계와 동문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까지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석구 총장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부단한 학문 연찬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본분이지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보전하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탁월한 의술을 베풀어 중생을 구제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사명으로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다』고 말한 후 『새 천년을 열어 나가는 21세기,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 심장부가 되고 남북 통합의 화합점이 되는 이 곳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대가 되리라는 확신 때문에 이 고양시 일산지역에 제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전했다.

권노갑 회장은 축사를 통해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 동국대학교가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실천하기 위해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대작불사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우수한 인재양성과 고귀한 의료사업을 통한 대 국민봉사를 실천할 자비도량 착공식을 16만 동문을 대표하여 축하한다』고 말한 후 『21세기를 맞아 개원되는 불교종합병원은 인간과 기술, 정보를 하나로 접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1천병상을 갖춘 한 · 양방 협진체제 구축, 선문화센터 운영등 특성화된 서비스등을 통해 약사여래 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는 장으로, 우리 불자뿐만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을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총 1천병상(양방 8백, 한방 2백) · 연건평 2만7천평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초대형 병원으로, 오는 2002년에 완공해 2003년 부처님 오신날에 개원할 예정인 불교종합병원은 앞으로 세계화, 인간화, 정보화를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한 · 양방 협진체제의 특성화된 진료서비스와 선문화센터운영, 불자들을 위한 평생진료제 실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불교정신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7개 병원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개원 2년전부터는 확보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전원을 의료기술이 뛰어난 세계 각국의 특성화된 병원에 연수를 보내 최고수준의 의료진 구축과 최첨단 의료장비 등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 의학 전산망 구축을 통해 세계의학정보 교류와 의료시스템 운영에도 최고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종합병원의 원대한 발전계획에도 불구하고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공사기금의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모교는 발전기금으로 4백12억원 이상을 조성해왔고 2002년까지 1천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금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건립 재정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2천만 불자들과 함께 병원을 건립한다는 취지로, '자비의 벽돌 한 장 동참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 종도의 의지와 협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전 불자의 염원인 병원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동국인의 바램인 불교종합병원의 힘찬 출발과 완성을 기대해 본다.

동국스키동우회

'99하계 정기총회 개최

동국스키동우회(회장=빅병돈 · 69 농경 · 대학스키협회 전무)는 지난 7월 17, 18일 양일간 정선 아우라지에서 「'99 하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동문과 가족간의 친목을 다졌다.

약 6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국스키동우회는, 재학시절 스키선수로 활동한 동문출신 모임으로서, 그동안 후배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현재는 재학생 선수가 없어 후배 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스키동우회는 과거의 동국스키가 우리나라의 스키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해 모교가 스키선수 양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모임에는 김원창(71 경제 · 본회 운영위원)정선군수, 윤 택(66 경제 · 본회 이사) 부국요업 사장 동문등 25명이 참석하여 동국인의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켰다.



강남 종합 한방병원 개원

문화센터 및 특수클리닉 운영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부속 서울 강남 한방병원은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 30분 황명수 명예회장, 오록원 이사장과 송석구 총장, 조재호 동국의료원장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본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로 100베드의 7개 한방진료과목과 양방진료과목인 가정의학과를 개설했으며 응급실, 종합검진실, 물리치료실 등 최신 의료시설과 문화센터 및 법당을 조성해 놓았다.

법대창설 50주년 기념 법대 후원의 밤 개최

모교 법과대학후원회(회장=이연택 · 61 법학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본회 부회장)는 지난 11월 18일 오후 7시 모교 상록원에서 법대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동국법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전북동문회 월례회 개최

전북동문회(회장=김삼룡 · 56 불교 ·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소장 · 본회 부회장)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6시 30분 선너머에서 10월 월례회를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동국라이온스 클럽 월례회의 개최 계획

동국라이온스클럽(회장=한영휘 · 61 경제 · 한영무역〈주〉 사장 · 본회 지도위원)은 오는 11월 23일(화) 오후 7시 신라호텔 3층 마로니에룸에서 11월 월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노갑 총동창회장에게 동국라이온스 명예회장 위촉패를 수여할 이날 모임에는 모교 송석구 총장과 동국라이온스 임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암장지연상 언론부문 수상

김상훈 부산동문회 회장



박권상(우측) KBS 사장에게 상패를 받고 있는 김상훈 동문(원내는 김상훈 동문).

부산동문회 회장인 김상훈(59 국문·부산일보 사장·본회 부회장)동문이 정말로 큰일을 해냈다.

지난 11월 1일(월) 오후 6시 30분 (사)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와 (재)한국언론재단이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위암장지연상 시상식」에서 김상훈 부산일보 사장동문이 영예의 언론인상을 수상한 것이다.

위암장지연상 역대 언론인상 수상자들을 보면 김대중 현 조선일보 주필과 당대 제일의 논객인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언론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인정받는 그야말로 권위있고 비중있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들을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지의 언론인들이 이 상을 독식한 만큼 지방언론인 출신이 이 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제10회 시상식에서 김상훈 부산일보 사장동문의 수상은 우리 16만 동국인의 자랑이자 동국인의 긍지를 한껏 높이는 개가라 하겠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을 보더라도 위암장지연 수상자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 받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박권상 KBS 사장을 비롯하여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 등을 비롯한 정계, 언론계, 학계, 문화계, 나아가 방송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300여명의 주요 저명인사가 참석했다.

다음은 위암장지연상 언론인상 심사위원장인 이종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이 밝힌 김상훈 부산동문회 회장의 업적을 전재하고자 한다.

부산동문회는 12월 17일(금) 오후 6시30분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99 부산동문회 동국인의 밤 및 총회」를 개최한다.

ROTC '99 정기총회 개최

노환영(3기) 신임회장 인준 예정



노환영 동문

ROTC동문회(회장=김인규·64 정외·〈주〉메트로건설 대표이사·본회 부회장)는 지난 10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강남소재 만리장성에서 동국대학교 ROTC 동문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송재만(69 수학·본회 이사)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ROTC동문회 운영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심도있고 강도높게 토론되었으며, 특히 김인규 현회장은 더욱더 활성화된 조직운영을 위해 1년여남은 잔여임기를 불사하고 3기에게 넘겨야 한다는 고심끝에 후배를 위해 전격적으로 용퇴를 결정했다. 이어 원용선(63 영문·남양전기〈주〉 대표이사·본회 부회장)고문이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기인 노환영(65 영문·〈주〉대흥지질 대표·본회 이사)동문을 만장일치로 제7대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한편, ROTC동문회는 11월 25일(목) 오후 7시 국방회관 메인홀에서 「동국대학교 ROTC 제7기 임관 30주년 기념 및 '99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개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 노환영 동문을 7대 신임회장으로 인준할 계획이다. 그리고 차후 타대학을 리드할 수 있는 ROTC동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회 사무처에서는 현 ROTC 14기 회장을 맡고 있는 지찬경(76 경행)사무처장이 총동창회의 회원관리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ROTC조직 활성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본회 권노갑 총동창회장과 모교 송석구 총장 등이 참석하여 신임회장에게 축하와 격려를 할 예정인바, ROTC 전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김상훈 동문 업적소개

심사위원장 이종석(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

작년까지의 위암 장지연상 언론부문 수상자가 9명에 달하지만 이중 지방신문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이 한분도 없었다는 사실에 역대 심사위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가져왔던게 사실이다.

제10회 수상자를 가리는 자리에서도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번만은 지방신문을 우선대상으로 수상자를 뽑아보자는 결론에 이르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수상자 김상훈 선생은 우리나라 현역 신문인으로서는 몇가지 남다른 기록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존재이다. 국내언론사상 최장기 논설위원(28년간)이며 광복후 언론인으로는 최연소 논설위원(26세)이란 기록외에 논설위원으로 시작해서 논설위원으로만 근무하다가 사장에 오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평론집 4권과 시집 6권, 칼럼집 2권 등 모두 12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언론인으로서는 예측키 어려운 기록이 될 것이다.

김상훈 선생은 22세의 약관(1958년)으로 대구의 매일신문의 정치현상논문 공모에서 「한국 정치를 정화하는 길」이 당선되고, 24세때인 1961년에는 부산일보 정치현상논문 공모에서 「3·4월 항쟁의 역사적 의의」로 당선됐다.

이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1962년에는 영남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언론과 인연을 맺어 1967년에는 대전일보 상임논설위원이 됐다.

선생은 1972년에는 부산일보사로 터전을 옮긴 이래 1995년까지 논설주간 주필로 한자리에서 한 우물을 파다가 1995년 전무이사, 1997년 사장에 올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산지역의 독자들에게 가장 낯익은 선생의 글은 주필재직때 쓴 「금요칼럼」일 것이다.

이칼럼은 선생 특유의 가식없고 직선적인 현실비판이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주었으며 그것이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창조적인 대안으로 연결되어 주위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장에 올라서도 선생은 이따금씩 「발행인 제언」을 집필, 남달리 투철한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성실성을 보였다.

특히 선생은 남북한 문제와 소련, 동유럽, 중국 등 옛공산권 문제들을 칼럼, 논문, 대담기사로 다뤄 이 방면에 유의하는 독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최근에는 신해양화시대와 국제화·세계화시대 나아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갈수록 관심의 영역을 넓히고 논리를 심화하는 노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객으로서의 활약만을 가지고 선생을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생의 신문제작과 경영에 대한 열정 못지않게 우리의 전통문화 내지 기층문화의 전승보전 창달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시조창의 부흥과 우리 전통무예인 택견의 보급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리고 1957년 21세의 약관으로 문단에 데뷔한 이래 선생은 6권의 시집과 역사집을 출간했고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을 맡는 등 문단에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40년 넘게 신문인으로 정치평론가로 시인으로, 나아가 전통문화의 전승 발전에 힘쓰는 문화수호자로 쉼없는 활동을 벌여온 선생을 제10회 위암상 언론부문 수상자로 뽑는데 심사위원 전원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경행과동문회 장학금 지급

년간 총 3,300만원 지급



경찰행정학과동문회(회장=전영화·69 경행·세기문화사 연구위원·본회 상무이사)는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 모교 행정대학원장실에서 1999학년도 2학기 경행과동문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경찰행정학과 재학생으로 성적 B이상인 학생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학기 4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수한(2년) △안 철(2년) △최상민(2년) △김병중(1년) 이상 4명.

한편 이밖에도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단체, 동문,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에스원 장학금(대표: 배동만)
△최현호(4년) △이재준(4년) △김영환(3년) △양희성(3년) △김현준(2년) △곽금희(1년) △김태훈(1년) △박영환(1년)
총 6백50만원 지급

〈이하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

■POCOM 장학금(대표: 김영철)
△조민행(4년) △김상우(1년)

■한국경호경비스템 장학금(대표: 백봉현)
△신명현(4년) △신일식(3년) △지병관(1년)

■박병욱 장학금
△유정록(4년) △조성운(1년)

■최연표 장학금
△허준(3년) △이완(2년)

■김영신 장학금
△지지환(4년) △송미숙(3년)

■박재석 장학금
△권대현(3년)

■황종호 장학금
△권순화(1년)

■원을성 장학금
△이창원(2년)

■김진국 장학금
△정혜정(3년) △정화수(2년)

한의과대학동문회 총회 개최

화합과 참여로 앞서가는 동국한의



한의과대학동문회(회장=손창수·87 한의·손 한의원 원장)는 지난 10월 10일 경주교육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총장, 류주형(57 농학·충남방적그룹 부회장)수석부회장, 최규철(66 정외·본회 상무이사)경주캠퍼스 부총장과 강병수 한의과대학장 등 30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동문회 총회」를 개최했다.

손창수 한의과대학동문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뒤늦게 시작한 제8대 동문회지만 저희 임원진들은 「화합과 참여로 앞서가는 동국한의가 되자」란 기치로 동문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고문)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류주형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국민봉사로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한의과대학 동문들의 우의와 결속을 강화하고,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전력하고 있는 「한의과대학동문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후배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모교 발전기금 전달 등 모교와 한의과대학 및 총동창회의 발전을 이뤄 새천년을 우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이끌 수 있도록 몸소 실천하는 손창수 회장 이하 임원 여러분과 동문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경의를 보낸다』고 말한 후 『총동창회와 동국대학교의 발전은 동국인이면 누구나 이룩해야 할 사명이다. 이는 개인의 발전이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듯, 동국인의 참여와 성원이 동국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동문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또한 본회와 전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한의과대학동문회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양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으며, 이어 송석구 총장은 축사에서 『전국에서 동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대하니 동국의 앞날이 매우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후 『몸은 이미 학교를 떠났지만 마음은 우리 동국대학교에 남아 있으리라 믿는다. 모교 발전기금 조성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동국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준 한의과대학동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문 회원들이 오랜만에 다함께 모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더불어 한의대의 위상을 높이고 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회무경과보고 및 모교와 동문회 발전방안의 건 등의 의안심의와 재학생 12명에게 총 600만원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의과대학동문회는 이와 같은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으며, 또한 송석구 총장으로부터 한의과대학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모교 발전기금으로 3천만원을 전달했다.

송석구 총장은 이에 한의과대학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지대원동문회
총장배 골프대회 개최

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회장=이두철)는 지난 11월 9일 경주 조선CC에서 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간의 친선도모를 위해 「총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대원울산동문회(회장=김철·지원 10기·㈜성진사 대표)는 지난 11월 14일 제일중학교 강당에서 99년도 울산동문회 체육대회를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서평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



저자 권의종 동문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

이 책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성역으로 감히 규정한다. 그 성역 내부를 낱낱이 들여다본다. 일그러진 얼굴과 삐뚤어진 마음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어두운 단면을 세상에 고발하고 있다.

이런 책을 다른 사람도 아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핵심간부가 썼다.

저자인 권의종(77 무역)동문은 현직 신용보증기금 종합기획부 부부장이다. 20년가까이 수많은 중소기업과 부대껴오며 중소기업을 삶의 주제로 살아온 이른바 중소기업 전문가다.

이렇듯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환부를 찾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중소기업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있다. 바로 이책에서 그런 원칙과 소신을 나름대로의 경험과 논리와 주장으로 힘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이 가고 책임있는 메시지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묵직하게 다가온다.

다소 막말조의 책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저자는 책을 쓰기에 앞서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하다.

단지 약자라는 이유로 정부, 언론, 국민들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기회주의적 중소기업.

IMF 환란기에도 정부에서 국민 개개인까지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그 죄값을 치를 때에도 홀로 책임을 면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중소기업. 책임분담은 커녕 고고한 희생양으로 특단의 지원세례를 받아챙기고 있는 중소기업.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산업의 첨병인적 행세하면서 빚잔치, 부실제품, 조악한 기술, 청탁문화, 조세포탈, 위장부도, 독선경영 등으로 속이 곪을대로 곪아터진 우리의 중소기업.

아무도 말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소기업. 가장 가까이서 상대해온 저자로서는 이제 방관자이기를 거부하려고 한다.

이책을 내놓은 것을 기회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총대를 매기로 한 것이다. 할 말은 하는 용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감이 반반씩 작용한 듯 하다.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는 중소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습성, 중소기업의 허술한 업무구조와 시스템, 중소기업인의 왜곡된 의식과 행태를 3부에 걸쳐 현장중심, 사례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오늘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정책실패, 제도실패 못지않게 바로 중소기업 경영의 실패가 적지않았다는 진실을 널리 알리고, 그간의 '중소기업 기살리기' 일변도의 세상사람들에게 아프지만 '중소기업 때리기'에도 동참해 줄 것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이 크다. 이제 "망해도 싸다"라는 막말을 들어야 할 엉터리 중소기업이 자취를 감출때까지 이 책의 경종은 쉼없이 계속 울려댈 것이다.

국내 최초 입체영상게임기 개발 / 판매

EFE교역 대표 장동락 동문



장동락 동문

입체영상게임기가 국내 최초로 중소업체 독자기술로 자체 개발돼 시판에 들어갔다.

EFE교역(대표-장동락·77 정외·본회 조직분과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2년여의 연구끝에 오락기용 입체영상제어장치인 「인터페이스」를 개발, 이를 적용해 만든 제품의 생산·판매에 나섰다고 밝혔다.

입체영상게임기는 특수 LCD(액정표시 장치)안경을 이용해 생생한 입체감을 느끼면서 게임을 즐기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CRT모니터, 입체영상 신호처리 컨트롤러, 프로그램운영 제어시스템 등으로 이뤄졌다.

모니터로 보내지는 VGA(Video Graphic Array)신호를 제어해 영상을 분할하고 분할된 영상을 LCD안경을 통해 입체영상으로 감상하는 원리다.

기존 게임방에서는 새로운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게임기 자체를 교체해야만 했다. 많은 시간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었던 것. 그러나 이 게임기는 일반 CD를 게임프로그램으로 이용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1천4백여종의 게임을 3차원 영상으로 즐길 수 있다.

장동문은 『게임기에 PC 기능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라며 『단일 프로그램의 단조로운 게임기와 게임은 다양하나 입체영상이 안되는 PC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해 시장성이 밝다』고 말했다.

장동문은 또 『PC방 게임기는 키보드로 조작하게 돼 있으나 이 게임기는 버튼과 스틱으로 바꿔 사용을 편리하게 만들었다』며 『특수 안경을 끼고 내장된 CD의 다양한 게임을 입체로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징과 장점때문에 일본제품이 판치는 게임기 시장을 빠르게 국산으로 대체해 나갈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문은 『국내에 설치된 게임기의 85%가 일본 제품』이라며 『새로 개발된 게임기가 출시되면 연간 1,000만 달러 규모인 수입 게임기 제품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문은 『최근 PC방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2차원 영상이나 '레인보우' 같은 게임을 3차원 영상으로 제공하면 게임기 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동문은 『폭력물이 대부분인 일본문화 일색인 오락실 게임환경을 흥미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바꿀 수 있어 청소년 놀이문화와 정신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게임기는 현재 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권을 출원 중이며 신기술평가 인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편 10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 「제8회 아·태 국제무역박람회」에서도 큰 호평과 관심을 끌었다.

한밭을 달군 동국인 체육대회 개최

대전·충남 동문회



대전·충남동문회(회장=조은구·68 경제·동양철강〈주〉 대표이사·본회 부회장)는 지난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도로공사 내전·충남지사 잔디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동국인 대전·충남동문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김석진(77 경영·신도철강〈주〉 대표·본회 이사)사무국장의 사회로 1부 체육대회와 2부 여흥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원범(65 행정·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본회 부회장)국회의원과 김홍만(71 행정·본회 이사)전 국회의원, 구재태(67 경행·본회 부회장)충남지방경찰청장, 황제주 전 교육감, 홍성규(48 불교)전회장, 한상익(74 경행·본회 이사)대전동부경찰서장 등 대전 충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과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고문)총동창회장을 대신해 본회 지찬경(76 경행)사무처장 등이 참가해 동국인의 정과 동문간의 우애를 한층 두텁게 다졌다.

대전을 중심으로 온양, 부여, 공주, 천안, 보령, 유성, 신탄진 그리고 멀리 서천동문회에서도 참가해 대전 충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 전체의 잔치로 승화된 이번 행사에서 조은구 대전·충남동문회 회장은 『이제 14회를 맞이한 대전 충남동문회 체육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충남지역에 있는 산하 지회를 전원 참석시켜 결속과 화합을 강화하여 한 차원 높은 대전 충남동문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이를 계기로 대전·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동국인의 위상을 더욱더 높여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전 충남동문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금년에는 특히 본회 지찬경 사무처장이 행사 전날 대전에 내려와 행사를 꼼꼼히 챙겨주는가 하면 권노갑 회장님이 16만 동국인을 대표해 이번 행사를 격려(금일봉 및 기념품, 화환 증정)하는 등 본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또한 이원범 의원, 김홍만 전의원, 구재태 충남경찰청장 그리고 관내 한상익 대전동부경찰서장 등 관내 관서장 및 전현직 회장 등이 전원 참석하여 대화합과 단결을 이루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재태 청장은 축사에서 『나의 마음은 언제나 대전·충남동국인 여러분 곁에 있지만 대민봉사를 수행하다보니 마음만큼 시간이 허락치 않았다. 동문 여러분들에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며 『그러나 회비는 지금까지 100% 충실히 납부했다. 그러나 오늘은 동문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된 즐거움과 동문의 정을 나누는 이번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달려왔다』고 하여 참석한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홀수 학번과 짝수 학번의 두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에는 축구를 시작으로 족구, 발야구, 릴레이 등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졌으며 특히, 동문부인들과 같이한 발야구에서는 여자동문들이 실축할 때마다 폭소와 박수가 끊이질 않았다. 대회중반에는 이원범 의원 동문이 참가하여 선수 및 동문과 동문가족들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며, 신윤표(65 행정·본회 부회장)한남대학교 대학원장 동문도 같이 참석하여 그야말로 대화합의 장면을 연출하는 한편, 한상익 대전동부경찰서장 동문의 배려로 잘 다듬어진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잔디구장을 체육대회 장소로 사용할 수 있어 동문부인과 자녀들이 조그만한 상처도 입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 다른직종의 동문들이 모인 대전·충남동문회의 결속력을 다시한번 과시한 대회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물론 행사때마다 매번 참석한 화승스님 동문과 원로선배들은 『이 지역 후배들은 다른 지역 동문과 달리 일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선배 동문들을 30-40명씩 초청한 '선배 극진히 모시기 행사'를 가진다』며 『그 일례로 행사가 있을시 일일이 대선배 댁으로 찾아가 행사장까지 승용차로 모시고, 행사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준다. 마치 본인의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원로 선배들을 너무나도 잘 대우해 준다』고 자랑이 대단했다. 이말을 들은 조은구 회장과 김석진 사무국장은 『역시 선배님들이 대전·충남동문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시고,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토대를 잘 닦아 놓으셨기에 우리도 당연히 선배님들을 잘 모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화답했다.

체육대회가 끝난후 이어진 2부 연회행사에서는 대천경찰서 최종천(71 경행)수사과장 동문이 100Kg의 돼지를 통째로 잡아와 야외 바비큐 파티를 하도록 하는가 하면, 서천군동문회에서는 백제 왕들만이 즐겨 마셨다는 진상품으로 인간 문화재가 만든 명산물인 서천 소곡주를 직접 본 행사를 위해 가져옴으로써 전 동문이 서천의 명주인 소곡주와 바베큐를 즐기며 하나된 대전·충남동문회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서천동문회는 4.19혁명 당시 이땅의 민주주의를 부르짖다 산화한 故 노희두 열사의 뜻을 해마다 기리는 충절의 동문회로 이름이 나 있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마이크로 미니버스를 전세내어 대전까지 오는 동국사랑을 실천하는 열성과 동문 및 동문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의 모든 음식은 동문부인 가족들이 솜씨를 발휘하여 정성껏 준비한 것으로, 대전동문부인들의 지원없이는 이런 성대한 행사를 치루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으며, 동문부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대전·충남동문회 체육대회는 친선과 우애를 다지며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홀짝수 학번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한 것이 타 지역 동문회와 다른 특징인 한편, 대전·충남지역의 타대학 동창회도 이러한 동국인의 결속력과 화합을 다들 부러워 한다고 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지찬경 본회 사무처장은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눈 후 12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국인의 밤에서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며 다음 방문지인 강원 영북동문회로 발길을 돌렸다.

다시 한번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과 한상익 대전동부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김석진 사무국장은 본인 사무실중 20평을 대전·충남동문회 사무실로 제공해 동국정신을 실천하는 산 표본일 뿐만아니라 대전·충남동문들의 구심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태백산맥 동쪽에서 동국인의 밤 개최

강원 영북지역(속초·양양·간성)동문회



강원영북동문회(회장=김완식·71 농학·고성군 임업협동조합장·본회 이사)는 지난 10월 25일 저녁 7시 속초의 유명 관광단지인 속초 영랑호 영랑정에서 동문 및 가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영북동문회 동국인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공휘식(80 전자·관동대 교수)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김완식 회장은 『금년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국인의 정을 나누며 화합과 단결의 장인 이러한 행사를 년 2회정도 가져야 했으나, 임업협동조합 간성조합장의 바쁜 일정때문에 상반기에는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송년모임과 내년 신년교례회 등 동국인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모임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다』는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완식 회장은 더욱 활성화된 영북동문회의 결속을 위해 산하에 신임 사무국장과 이를 보좌할 간사장을 신규로 임영하는 등 조직활성화에 남다른 애착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사무국장에는 서동일(83 경행·고려제육관 관장)동문이, 간사장에는 황정숙(경원 20)동문이 선출돼 임명장을 받았으며, 영북동문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진호(72 농경)전 회장과 유문승(86 한의·중원한의원 원장·본회 이사)전 사무국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 노고를 치하했다.

본회에서는 권노갑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지찬경 사무처장이 직접 권노갑 회장의 금일봉과 기념타올 세트 그리고 화환을 보내 강원 영북동문회의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춘천지부와 영북지부의 활성화에 평소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던 김진선(74 행정·본회 부회장) 강원도지사 동문도 이날 행사에 축전과 함께 시계 3점을 기증하는 한편, 유인학(92 일원·본회 부회장)한국조폐공사 사장 동문은 동양 12지신을 새긴 기념주화 세트를 보내와 동문 및 가족들의 기념품으로 간직하도록 지원하는 등 영북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에 김완식 회장과 강원 영북동문회 동문 및 가족은 본회와 동문들의 지원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교육계에 많은 진출을 보인바 있는 강원 영북동문회는 이날도 김택인(61 국문)전 속초고 교장, 윤흥열(50 영문)전 속초고 교감 동문과 조용운(63 사학)전 계진고 교장, 김남근(72 상학)동우전문대 교수 동문등이 대거 참가해 본 행사와 공로패를 받은 동문들을 축하했다.

본회 지찬경 사무처장은 『오는 12월 16일(목) 서울에서 「'99 동국인의 밤」에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포함해 영북지부 회장단을 전원 초청하니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기 바란다』고 하자 김완식 회장은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영북동문회 회장단이 전원 참석하여 동국 대단결을 이루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안과 영랑호 호수를 뒤로 하며 발걸음을 돌린 동문들의 가슴에는 짙어가는 가을정취와 함께 동국사랑도 한껏 짙어져 갔다.

'99 동국인 송년의 밤 행사에 동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 시: 1999년 12월 16(목) 오후 7시
장 소: 소피텔 앰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 (장충동소재)
회 비: 3만원

16만 동국인의 화합과 단결의 장인 동국인의 밤이 개최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찬바랍니다.
■ 협찬안내: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 ☎(02)733-3991~3

'99 동국인 송년의 밤 감사패 · 축하패 · 공로패 수상자 추천 안내

가. 대 상 : 각지역 지부 지회 및 학과 대학 대학원동문회 활동사항 공적자, 진급자 등.
나. 추천일시 : 1999. 11. 25(木)까지 본회로 제출 要.
다.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전국 지부 · 지회로 개별 발송(양식 포함) 계획임.

동 국 대 학 교 총 동 창 회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대망의 2000년에는 이러한 행사가 벌어집니다

1월
♣ 신년교례회
- 장소 : 앰베서더호텔(장충동소재)

2월
♣ 2월 4일(金) - 6일(日)(3일간)
민속의 날(구정)
♣ 2월 17일(木) : 경주 Campus 졸업식
- 장소 : 문무관(체육관)
♣ 2월 25일(金) : 서울 Campus 졸업식
- 장소 : 중강당
♣ 2월 25일(金)
2000년도 1학기 동우장학금 지급
- 장소 : 모교 본관 4층 교무위원 회의실
♣ 2월 29일(火)
2000년도 동국인명록 발간(CD롬 포함)

3월
♣ 3월 2일(木) : 서울 Campus 입학식
- 장소 : 만해광장
♣ 3월 3일(金) : 경주 Campus 입학식
- 장소 : 문무관(체육관)

4월
♣ 정기 이사회
- 장소 : 앰베서더호텔(장충동소재)
- 안건 : 99년도 결산 및 2000년 신규예산 승인

5 · 6월
♣ 북미주총동창회 국내 동문 초청 환영연
(골프포함)
- 장소 : 미국 NEW YORK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Internet Home Page
개설

8월
♣ 2000년 동국인 체육대회 준비 전국 지부 · 지회 회장단 회의
- 장소 : 경주 Campus 교무위원 회의실
♣ 8월 25일(金) : 모교 후기졸업식
- 장소 : 중강당
♣ 8월 25일(金)
2000년도 2학기 동우장학금 지급
- 장소 : 모교 본관 4층 교무위원 회의실

9월
♣ 9월 10일(日) - 13일(水)(4일간)
중추절(추석)

10월
♣ 10월 14일(土) - 15일(日)(2일간)
2000년 동국인 체육대회
- 장소 : 전 야 제 = 경주 코오롱호텔
체육대회 = 경주 Campus 체육관

12월
♣ 12월 14일(木) : 2000년 동국인 송년의 밤
- 장소 : 앰베서더호텔(장충동소재)

각 지부 · 지회는 행사 전이나 후에 본회로 행사내용을 알려주시면, 본지를 통해 귀 지부 · 지회의 활동상황을 16만 동국인에게 알리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북미주동문 초청 환영연 참석자 명단

■북미주총동창회 배시영 회장 부부
■북미주총동창회 이태근 명예회장 부부
■북미주총동창회 이민휘 고문
■북미주총동창회 장정헌 수석부회장 부부

■뉴욕
구영범 회장, 박문성, 함조웅, 김상목, 김치열, 임세창, 김우영, 최권석 등 10명

■남가주
김경재 회장, 배문혁, 김종한, 임경호, 이지연, 우진 부부, 안창해 부부, 김종태, 지정권, 이근영, 정인철 부부, 주천홍, 이성하, 이준정, 오창환 부부, 윤덕기 부부, 나귀성, 신천순, 이성화, 박태원, 정창문 부부, 이헌정 등 30명

■동국로얄대학교(남가주)
서영수 동문회장 부부, 김용훈 부부, 김정순, 박정은, 주선옥, 이복순, 조쉴리, 이찬복 등 10명

■워싱턴 DC
차경훈 고문, 송제경, 송영하, 정천용, 구본삼 등 5명

■샌프란시스코
하혜원 회장, 김용백 부부, 김용직 부부, 방영호 부부, 문유진 부부, 최문규, 유하선 등 11명

■시카고
유홍열 회장, 곽병희 부부, 강대학 부부, 김명호 부부, 윤응모 부부, 천종국 등 9명

■디트로이트/미시건
송병윤 회장 부부, 명형식 등 5명

■달라스
오재관 회장, 이종칠, 김건진, 임인창 부부 등 5명

■애틀란타
김영길 회장, 정재수 2명

■휴스턴
이명수 회장 부부, 임성빈 등 3명

■아리조나
이근영 1명

■하와이
강기철 회장 부부, 이상익 부부 등 4명

■벤쿠버(캐나다)
조 건 회장 부부, 박두일, 명영남 부부, 양원석 부부, 김광수 부부, 박종석 부부, 이길근 부부, 이두희 부부, 정희진 부부, 김영식 부부, 유순희 등 20명

■토론토(캐나다)
김종주, 최종기 2명

■기타 : 서울 현지합류(LA,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 11명 — 총 135명 —

북미주 아리조나 지부

모교 축구부 전원 현지 동계훈련 초청



좌에서부터 신관호 홍보팀장, 지찬경 본회 사무처장, 박상호 체육실장, 송석구 총장, 이근영 동문, 황영수 사무처장, 김승기 축구부 감독.

북미주 아리조나 동문들이 어느대학이나 총동창회에서 하지 못한 큰 사건을 일으켰다.

이 전무후무한 Project는 다름 아닌 진 회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카우보이 본산지인 북미주 아리조나 지부 동문들의 모교 사랑과 본국 총동창회에 대한 애정으로 일궈낸 것이다.

총경비 $30,000(₩36,000,000)이 드는 이번 Project는 아리조나 동문들이 십시일반 $100-$200씩 모아 $30,000이라는 거금을 마련한 것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모교와 본국 총동창회에 혼을 바치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동문 부인들의 절대적인 성원이 있었다.

이역만리에서 모든 고난과 설움을 이겨내고 그 고귀한 돈을 아낌없이 희사한 북미주 아리조나 지부 및 동문가족에게 경하의 찬사를 보낸다.

이에 본 총동창회와 모교는 더욱 더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 및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노고에 답하며 위로할 계획이다.

한편 이근영 동문은 이번 본국 행사중에 $500의 장학금을 본회에 기증해 후배들의 귀감이 된바 있고, 모교 송석구(62 철학·본회 고문)총장 및 관계자와 만났으며 본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지찬경(76 경행)사무처장과 관련문제를 상호 협의했다.

다음은 축구부 초청에 관련된 영문 전문과 이에 대한 번역 전문을 게재한 것이다.

◆훈 련 기 간 : Jan. 2000년(20일간)
◆훈련Camp : Phoenix, Arizona
◆참 가 인 원 : 30명 전원
◆인 솔 자 : 박상호 체육실장
김승기 감독

INVITATION FOR VISITING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NGGUK UNIVERSITY SOCCER TEAM MEMBER & STAFFS
To whom it may concern :
This invitation entitle to DONGGUK UNIVERSITY SOCCER TEAM, who will visi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ill stay most of time in state of Arizona as winter training camp and will play few games with local school and private teams.
Total stay length will be two and half($2\frac{1}{2}$) weeks.

Please assist SOCCER TEAM to obtain passport from korean government, and visa from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seoul korea to enter to the U.S.A. on late January or early February in year of 2000.

DEAR SOCCER TEAM :
Please visit us, and give us opportunity to help team 's winter training set up and schedule arrange to practice and play games with Phoenix soccer teams.
ARIZONA DONGGUK ALUMNI ASSOCIATION'S members very please to meet our mother school soccer team as school brothers and share with brotherhood to exchange ideas for future.
And team members will learn some american culture and systems.

Please ask any assistance, if need,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for help.
We are very happy to take care with promptly.
Looking forward to see you at our alumni territory SUN VALLY ARIZONA soon.

Sincerely yours,

Branch Alumni Chairman HYUNG - KYU CHON

모교 축구부 선수단 전원을 미합중국으로 초청합니다

모교 관계자 제위 :
본 것은 모교 축구부 선수단을 미국 아리조나주에 동계 전지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공식 초청하는 것이며, 이곳에서 약 20일간 체류하는 동안 현지 학교 축구팀 및 클럽팀과도 몇차례 친선 정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모교 관계자는 2000년 1월 말이나 2월초에 미국으로 입국 할 수 있도록 본국 외무부와 미국 영사관에 여권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부 선수단 제위 :
이번 동계전지훈련차 여러분을 초청하게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계훈련 camp 설치와 훈련계획 및 현지 Phoenix 축구팀과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동국 동문회의 동문들은 가까운 장래에 모교 축구팀을 만나 동문으로서의 정과 우애를 나누며 모교 및 축구팀과 이곳 현지팀과의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우애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모교 축구팀을 위하여 미국의 문화와 축구선수단 운영시스템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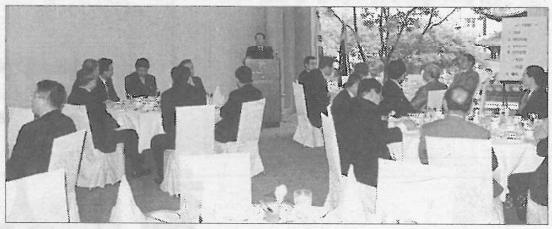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히 모든 점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ARIZONA SUN VALLY에서 우리 모교 축구부 후배들과 이른 시일내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조나동문회 회장 전형규

임시 이사회 개최

권회장, 류수석부회장 모교 재단이사 선출



권노갑 회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본회는 지난 10월 16일(토) 오전 8시 조선호텔 2층 튜울립홀에서 권노갑(53 경제·국민회의 고문)회장과 류주형(57 농학·충남방적그룹 부회장)수석부회장 등 5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모교 파견 재단이사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권노갑 회장과 류주형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동국학원에 재단이사 선임을 요청했다.

한편, 권회장과 류수석부회장은 지난 10월 26일 교육부로부터 동국학원 재단이사로 공식 승인받았으며 동시에 모교 재단이사로 정식 선임되었다.

뉴욕동문회 「동국인」 발간

뉴욕동문회(회장=구영범·66 영문)는 뉴욕을 비롯한 미동부 지역에 있는 동문들의 단합을 위해 동국인(가칭)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뉴욕동문회는 출간을 축하하는 내용이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동국대와 동문들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담은 내용의 글을 모집하고 있다.

◆원고 보낼 곳 : GONG, DuckRo 45-35 46St, #5E WOODSIDE NY 11377. TEL : 212-683-9750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텍사스동문회 · 11월 21일 달라스에서

북미주 텍사스동문회(회장=오재관·71 농경·달라스 한국일보 지사장)는 지난 11월 21일(일) 달라스 리버체이스에서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달라스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배 텍사스지역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본회에서는 대회우승컵을 만들어 텍사스동문회에 보내 증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달라스 지역 동문회는 지난 북미주동문회 초청 행사에서 본회에 장학금으로 $1,000을 기증한바 있다.

중국 북경동문회 제2차 총회 개최

정재남 동문 주폴란드대사관으로 부임

동국대학교 재북경동문회(회장=백상현·80 영문·북경천지광지과기공사 고문)는 지난 3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7월 2일 저녁 7시 동문이 운영하는 북경시내 「천하대장군」식당에서 '99년도 제2차 총회를 열고 동문간의 친목을 다졌다.

현재 재중국 한인회장을 맡고 있는 북경동문회 손근호 고문의 적극적인 지도력과 포용력으로 총 125명의 선후배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재북경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한 이번 총회에서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주중국대사관 2등서기관으로 근무하며 북경동문회 총무직을 담당했던 정재남(88 법학) 동문은 외교통상부 정기인사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주폴란드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부임하였으며, 국정홍보처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김무환(85 영문)동문이 지난 8월 5일 주중국 대사관 공보관으로 부임해 북경동문회의 일원이 되었다.

주폴란드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부임한 정재남동문은 현재 동국대학교 폴란드동문회 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늘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견지하고 모교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는 다짐을 본회로 보내오는 등 동국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재남 동문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First Secretary Chung Jae-Nam,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UL.I. Krasickiego 25, 02-611, Warsaw, Poland.
TEL : 48-22-44-6950

기본이 튼튼한 나라,
학교·사회체육에서부터

IMF 사태로 어려운 시기,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본이 건실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튼튼해야 나라가 바로서고 국가경쟁력이 살아납니다.
학교·사회체육 육성으로, 건강한 국민, 기본이
바로선 사회, 함께하는 제2건국, 희망찬 21세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연택 동문
(61 법학 · 본회 부회장)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내역 ('98년말 현재)

발족기금 ('89)	3,521억원	청소년 육성	744억원
조성액	6,364억원	국민생활관 건립(15개시도)	450억원
촉지원액	3,979억원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지원	1,260억원	동네체육 시설 지원	347억원
생활체육지원	835억원	체육인 복지	244억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두십의 스포츠센터에서부터 지방의 동네체육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사회 곳곳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으로써 건강한 국민, 튼튼한 나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생활, 보람찬 내일
국민체육진흥공단

